



기출 PICK

정답과 해설

생활과 윤리

정답과 해설!

1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

개념 확인 문제

4쪽

1 (1) 사회 윤리 (2) 생명 윤리

2 (1) ○ (2) ×

난이도별 필수 기출

5~13쪽

3 ③	4 ②	5 ①	6 ⑤	7 ①	8 ③
9 ②	10 ⑤	11 ②	12 ④	13 ⑤	14 ④
15 ①	16 ③	17 ③	18 ④	19 ①	20 ③
21 ②	22 ①	23 ④	24 ⑤	25 ⑤	26 ④
27 ④	28 ③	29 ④	30 ②	31 ②	32 ②
33 ①	34 ④	35 ④	36 ④	37 ④	
38 ㉠ 메타 윤리학, ㉡ 이론 윤리학, ㉢ 실천 윤리학					39 ⑤
40 ④	41 ②	42 해설 참조			

3 실천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근거로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에 따라 실천 윤리학의 분야가 구분되는데, 시민의 의무, 직업 윤리, 사회 정의 등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는 사회 윤리 영역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①은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정보 기술과 매체 윤리 등을 다룬다. ②는 예술 및 대중문화, 의식주와 소비 문제, 다문화 관련 문제 등을 다룬다. ④는 인공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생명 복제 등의 문제를 다룬다. ⑤는 소통의 윤리, 남북통일, 국제 사회의 분쟁 등을 다룬다.

4 실천 윤리학은 현실의 다양한 윤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실천 윤리학의 영역 중 문화 윤리 영역에서는 예술 및 대중문화와 관련된 문제, 의식주 및 소비와 관련된 문제, 다문화 관련 문제, 종교와 관련된 문제 등을 다룬다.

바로알기 | ③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기후 변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을 다룬다. ④는 정보 사회의 윤리, 정보 기술의 발전과 매체 관련 문제 등을 다룬다.

5 실천 윤리학의 한 분야인 생명 윤리 영역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뇌사 및 장기 기증, 생명 복제, 동물 실험과 동물의 권리 등의 문제를 다룬다.

바로알기 | ①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삶과 죽음 및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다루는 생명 윤리 영역에서 제기할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6 실천 윤리학의 한 분야인 생태 윤리에서는 과거에는 절대적이었던 가치의 변화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윤리학과는 다른 새로운 윤리학이 요구되면서 등장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이론 윤리학의 한계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바로알기 | ⑤ 생태 윤리는 이론적 근거를 세우는 것보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였다.

7 실천 윤리학은 영역별로 생명 윤리, 성과 가족 윤리, 사회 윤리, 과학 기술과 정보 윤리, 환경(생태) 윤리, 문화 윤리, 평화 윤리 등으로 구분된다. ① 안락사 문제는 삶과 죽음과 같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생명 윤리의 영역에 해당한다.

바로알기 | ② 기후 변화 문제는 환경 윤리에 해당한다. ③ 사형 제도의 존치 문제는 사회 윤리에 해당한다. ④ 빈곤과 해외 원조 문제는 평화 윤리에 해당한다. ⑤ 성의 자기 결정권 문제는 성과 가족 윤리에 해당한다.

8 실천 윤리학의 다양한 영역은 분야에 따라 각각의 핵심 쟁점과 연결될 수 있다. 평화 윤리 영역에서는 통일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생명 윤리 영역에서는 유전적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적 개입 문제를, 사회 윤리 영역에서는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문화 윤리 영역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극복 방안을 핵심 쟁점으로 다룬다.

바로알기 | ③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시민 윤리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는 실천 윤리의 영역은 과학 기술과 정보 윤리 영역이다.

9 (가)에 들어갈 윤리학의 영역은 출생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개입, 생명 과학 기술로 인한 문제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는 생명 윤리이고, (나)에 들어갈 윤리학의 영역은 예술과 도덕의 갈등, 의식주와 소비 윤리의 문제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는 문화 윤리이다.

10 ㉠은 생명 윤리 영역의 핵심 쟁점으므로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고, ㉡에는 직업 윤리와 사회 정의 문제가 핵심 쟁점으므로 사회 윤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에는 '사이버 공간의 윤리와 현실 윤리는 다른가?'가, ㉣에는 '왜 의식주와 소비가 윤리적인 문제로 등장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은 통일의 가치와 사회 갈등 극복을 위한 소통의 윤리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윤리가 들어갈 수 있다.

11 (가)는 생명 윤리 영역이므로, ㉠에 들어갈 말은 '동물 실험'이다. 생명 윤리 영역에서는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동물 실험의 허용 가능성 등의 문제를 다룬다. (나)는 사회 윤리 영역이므로, ㉡에 들어갈 말은 '사형 제도'이다. 사회 윤리 영역에서는 사형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쟁점 등을 다룬다. ㉢에 들어갈 말은 '보편 윤리'이다. 문화 윤리 영역에서는 문화 다양성 존중과 보편 윤리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쟁점 등을 다룬다. ㉣에 들어갈 말은 '약소국에 대한 원조'이다. 평화 윤리 영역에서는 약소국에 대한 원조 문제에 대한 쟁점 등을 다룬다.

12 (가)는 안락사와 뇌사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생명 윤리 영역에 해당한다. (나)는 공정한 분배의 기준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사회 윤리 영역에 해당한다. 사회 윤리 영역에서는 직업 윤리, 공정한 분배 및 처벌과 관련된 문제, 시민 참여와 시민 불복종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바로알기 | ② 다문화나 종교 관련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문화 윤리 영역이다. ⑤ 시민의 정치 참여와 시민 불복종 문제를 다루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13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윤리학의 목표로 삼는다.

바로알기 | ①은 실천 윤리학, ②는 이론 윤리학, ③, ④는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14 제시된 글의 '나'는 기술 윤리학의 입장을, '어떤 사람'은 이론 윤리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술 윤리학의 입장에서는 이론 윤리학에 대해 사회의 도덕 관행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⑤는 이론 윤리학, ②는 메타 윤리학, ③은 실천 윤리학에서 제시할 수 있는 진술이다.

개념 보충

윤리학의 분류	
이론 윤리학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관한 이론적 탐구를 중시함
실천 윤리학	이론 윤리학에서 정립한 도덕 원리 등을 통해 현실의 구체적인 윤리 문제 해결을 중시함
메타 윤리학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과 관련된 논리를 분석함
기술 윤리학	도덕 현상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함

15 제시된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는 메타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개념과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규칙과 인식의 방법을 검토한다.

바로알기 | ㄴ은 실천 윤리학, ㄹ은 기술 윤리학에서 강조할 내용이다.

16 제시된 글의 '나'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윤리학'은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서는 실천 윤리학에 대해 도덕 이론의 적용보다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이 중요함을 놓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실천 윤리학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 도덕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②, ⑤는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④ 실천 윤리학은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론 윤리학의 연구 성과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17 제시된 글의 '나'는 실천 윤리학, '어떤 이들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서는 기술 윤리학의 입장에 대해 사실의 관점에서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기술하는 것만을 강조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18 (가)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메타 윤리학은 좋음과 옳음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서는 가. '도덕적 관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거나 기술하는 것이 윤리학의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정의 대답을, ㄴ. '도덕 판단의 정당성 검토가 윤리학의 핵심인가?'와 ㄹ. '윤리학은 해야 한다는 것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언어적 의미를 분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19 밑줄 친 '이것'은 이론 윤리학이다. 규범 윤리학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이론 윤리학과 이론 윤리를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천 윤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 윤리학은 실천 윤리학에 비해 도덕적 본질을 해명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인생의 객관적·보편적인 도덕규범을 찾고자 한다.

바로알기 | ㄴ, ㄹ은 실천 윤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0 제시된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이다. 이론 윤리학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등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탐구한다. 이에 따르면 윤리학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관해 탐구해야 한다.

바로알기 | ①, ②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 ⑤는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21 제시된 글에서는 뇌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존엄성이나 사회적 효용성 등과 관련된 이론 윤리학의 연구 성과들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천 윤리학이 이론 윤리학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①은 메타 윤리학, ③은 기술 윤리학, ⑤는 이론 윤리학의 특징이다. ④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학제적 접근을 추구한다.

22 밑줄 친 '이 윤리학'은 실천 윤리학이다. 실천 윤리학은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의학, 과학 등 관련된 학문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학제적 접근을 추구한다.

바로알기 | ②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이나 풍습 등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윤리를 일종의 사회적 관행이나 관습으로 기술한다. ③ 실천 윤리학은 현실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 윤리학에서 정립한 전통적 도덕 원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는 메타 윤리학, ⑤는 이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23 제시된 윤리학은 실천 윤리학이다. 실천 윤리학은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론 윤리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며, 실천 윤리학이 다루는 분야는 환경 윤리, 성 윤리, 문화 윤리, 사회 윤리 등 매우 다양하다.

바로알기 | ㄴ. 다양한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중시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24 밑줄 친 '이 윤리학'은 실천 윤리학이다. 실천 윤리학은 현대 사회에 등장한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 윤리학을 통해 탐구한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의학, 법학, 과학, 종교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학제적 접근을 중시한다. 따라서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바로알기 | ①, ④ 실천 윤리학은 실제적인 도덕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는다. ②는 메타 윤리학, ③은 이론 윤리학의 특징이다.

25 제시된 글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윤리 규범이 아닌 새로운 윤리학, 즉 실천 윤리학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학문 영역의 지식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실천 윤리학의 특징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은 이론 윤리학, ②, ③은 메타 윤리학, ④는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다.

26 (가)는 이론 윤리학, (나)는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은 윤리적 행위의 근본 원리로서 성립 가능한 도덕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현실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의 연구 성과를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에 적용하여, 삶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은 모두 인간의 도덕적 삶을 안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알기 | ㉡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27 (가)는 이론 윤리학, (나)는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등 도덕적 행위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도덕성의 기초를 정립하고자 한다. 실천 윤리학은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학제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의 연구 성과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두 윤리학 모두 당위의 학문이라는 윤리학의 본질적 성격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가치 판단을 배제한 객관적인 결론 도출을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28 갑은 실천 윤리학, 을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천 윤리학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의 해결을 중시한다. 따라서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언어와 명제의 의미 및 타당성 분석을 중시하는 메타 윤리학이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명제가 진위 판단의 대상임을 강조한다. **②**, **④** 윤리 문제를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하여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을 윤리학의 목표로 삼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⑤**는 실천 윤리학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29 갑은 실천 윤리학, 을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천 윤리학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도덕 원리를 탐구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에는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우선해야 한다는 진술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③**은 기술 윤리학, **②**, **⑤**는 메타 윤리학에서 강조할 진술이다.

30 제시된 글의 '나'는 메타 윤리학, '어떤 사람들은'은 실천 윤리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메타 윤리학은 실천 윤리학에 대해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도덕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실천 윤리학은 다양한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학제적 접근을 강조하므로 사회·자연 과학적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③**은 기술 윤리학에게 할 수 있는 비판에 해당한다. **④** 실천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도덕 원리가 필요하다고 보므로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가 필요함을 강조할 것이다. **⑤**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지만, 도덕 이론의 연구만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도덕 이론의 연구만으로는 삶의 구체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31 갑은 이론 윤리학, 을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론 윤리학은 윤리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 가능한 도덕 원리의 정립을 주요 탐구 과제로 삼는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 및 추론의 타당성과 윤리학의 학문으로서의 성립 가능성을 주된 탐구 과제로 삼는다. 따라서 갑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탐구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은 메타 윤리학, **③**, **④**는 이론 윤리학의 입장에서 제기할 질문이다. **⑤**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서만 제기할 질문이다.

32 (가)는 이론 윤리학, (나)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은 윤리적 행위의 근본 원리와 도덕 판단의 기준을 탐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과 관련된 논리 분석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이론 윤리학에 비해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바로알기 | **③** 이론 윤리학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구체적 삶의 문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다. **④** 도덕적 풍습이나 관행을 문화적 사실로 인식하고 인과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33 갑은 이론 윤리학, 을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론 윤리학은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보다는 도덕 원리나 도덕 법칙의 정립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주된 관심사를 도덕 논증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ㄴ**. 선한 행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밝히는 것은 이론 윤리학의 과제이다.

34 (가)는 이론 윤리학, (나)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은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핵심으로 삼는다. 반면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 추론의 타당성 검토를 핵심으로 삼는다. 또한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문제가 올바른 대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언어 분석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 **②**는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③** 메타 윤리학이 언어 분석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 핵심 목적이 현실적 윤리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 **⑤** 이론 윤리학은 메타 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윤리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35 갑은 기술 윤리학, 을은 이론 윤리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에 대한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기술을 강조하고, 이론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본 원리에 대한 탐구를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기술 윤리학에서는 도덕 현상을 기술할 때, 특정 시대의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한다. **②**, **③**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는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므로 갑에게만 해당한다.

36 갑은 기술 윤리학, 을은 이론 윤리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술 윤리학은 다양한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이론 윤리학은 윤리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의 정립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갑에게 도덕적 정당화의 규범적 근거를 제공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갑은 도덕적 관습을 문화적 사실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갑은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해야 함을 강조한다. **③** 갑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론 윤리학의 입장을 간과하고 있다. **⑤**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 해당한다.

37 (가)는 기술 윤리학, (나)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메타 윤리학은 기술 윤리학에 비해 'X: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에 주력하는 정도'는 낮고, 'Y: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탐구에 주력하는 정도'는 높으며, 'Z: 도덕적 관행에 대한 가치 중립적 서술을 강조하는 정도'는 낮다. 따라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에 해당한다.

38 **모범 답안** ㉠ 메타 윤리학, ㉡ 이론 윤리학, ㉢ 실천 윤리학

39 (가)는 도덕적 언어와 도덕적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는 메타 윤리학, (나)는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구체적 삶에서 실천적 규범을 제공하고 자 하는 실천 윤리학, (다)는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이론 윤리학에 해당한다. 이론 윤리학에는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이론 윤리학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바로알기 | ㄱ. 메타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도덕적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므로 가치 지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ㄴ. 실천 윤리학은 삶의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론 윤리학에서 탐구한 윤리 이론을 활용한다.

40 (가)는 메타 윤리학, (나)는 실천 윤리학, (다)는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 분석에 주요 관심을 갖고, 실천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한편, 기술 윤리학은 특정 시대의 문화나 사회의 도덕적 풍습과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바로알기 | ①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 서술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②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모색을 1차 목표로 삼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③ 실천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⑤ 논리 분석을 통해 도덕 판단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41 ㉠은 메타 윤리학, ㉡은 이론 윤리학, ㉢은 기술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입증에 중시한다. 한편 이론 윤리학은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메타 윤리학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나 도덕적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탐구 주제로 삼기 때문에 이론 윤리학에 비해 도덕적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ㄷ. 도덕적 진술의 당위성을 중시하는 것은 이론 윤리학이다.

42 **모범 답안** (1) ㉠ 기술 윤리학, ㉡ 이론 윤리학, ㉢ 메타 윤리학

(2) ㉡ 이론 윤리학의 주요 관심 주제는 '옳은 것'이나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인데 비해, ㉢ 메타 윤리학의 주요 관심 주제는 '옳다', '선하다'의 의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2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개념 확인 문제

15쪽

43 (1) - ㉡ (2) - ㉠ (3) - ㉢

44 (1) ㉡ (2) ㉡ (3) ㉠

45 (1) 칸트 (2) 밀 (3) 벤담

46 (1) × (2) × (3) ○

난이도별 필수 기출

16~29쪽

47 ⑤	48 ⑤	49 해설 참조	50 ⑤	51 ②
52 ①	53 ①	54 ①	55 ⑤	56 ②
57 해설 참조	58 ⑤	59 ④	60 ③	61 ②
62 ③	63 ⑤	64 ②	65 ③	66 ④
68 ③	69 ④	70 ②	71 해설 참조	72 ①
73 ④	74 ①	75 ⑤	76 해설 참조	77 ⑤
78 해설 참조	79 ⑤	80 ③	81 ②	82 ④
83 ①	84 ③	85 ③	86 ①	87 해설 참조
88 ①	89 ⑤	90 ①	91 ④	92 ④
94 ⑤	95 ⑤	96 ②	97 ⑤	98 ④
100 ③	101 ②	102 ④	103 ②	104 ⑤
106 ⑤	107 ④	108 ④	109 ⑤	110 ②

47 제시된 동양 윤리 사상은 유교이다. 유교에서는 수양을 통한 도덕적 인격 완성과 도덕적 이상 사회의 실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사람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인(仁)을 핵심 덕목으로 삼는다. 유교에서는 인의 실현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충(忠)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서(恕)의 가르침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유교에서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을 기반으로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한다. ②는 도가 윤리, ③은 불교 윤리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④ 열반은 불교 윤리에서 강조하는 이상적 경지이며 불교에서는 고통의 제거를 통해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48 제시된 동양 윤리 사상은 유교이다. 유교에서는 성실과 배려를 삶에서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인식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충(忠)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恕)를 통해 타인에 대한 사랑인 인(仁)을 실천하고자 한다. 기소불욕(己所不欲) 물시어 인(勿施於人)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서(恕)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바로알기 | ①, ④는 도가 윤리, ②, ③은 불교 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49 **모범 답안** 충(忠)은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서(恕)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면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50 제시된 글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도리인 오륜(五倫)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유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수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수기안인(修己安人)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은 도가의 입장이다. ② 유교에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가 부모에 대한 효라고 본다. ③ 유교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보다 공동체를 중시한다. ④ 유교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51 제시된 글에는 수기안인(修己安人)과 경(敬)의 자세를 강조하는 유교 윤리 사상이 나타나 있다. 유교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규범을 중시한다.

바로알기 | ①은 도가 윤리에서 강조하는 이상적 사회인 소국 과민(小國寡民)이다. ③, ⑤는 도가 윤리의 입장이다. ④ 인(仁)은 유교 윤리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무차별적인 사랑인 겸애(兼愛)는 묵가 사상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52 ㉠에 들어갈 용어는 '대동'이다. 유교에서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도덕적 사회인 대동 사회를 지향하였다.

바로알기 | ② 신독(慎獨)은 유교 윤리에서 강조하는 태도로,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

53 유교에서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신독(慎獨)의 자세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명(正名) 사상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ㄷ은 도가의 특징이다. 유교에서는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시비지심)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ㄹ, 유교에서는 준비진소를 구분하는 차별적인 사랑을 통해 인(仁)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54 제시된 글의 사상은 유교 사상가인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선하게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규범인 예(禮)가 필요하며, 예를 기준으로 개개인의 직분을 구별하여 각자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개개인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 순자는 통치하는 일은 도에 정통한 군자만이 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순자는 예에 따라 각자 자신이 맡은 직분에 능통해야 한다고 본다. ④ 순자는 사회적 신분은 예에 합치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⑤ 순자는 예가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제정된 규범이라고 본다.

55 제시된 규범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도리인 오륜(五倫)이다. 유교에서는 대동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며,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성을 중시한다. 또한 지속적인 인격 수양을 통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성인이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며 다스리는 덕치를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⑤ 유교 사상가인 맹자는 백성이 항심(恒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향산(恒産)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56 대화의 스승은 불교 윤리 사상가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물이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설을 강조하며, 모든 존재가 가진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불교에서는 불변하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불교에서는 연기의 진리를 깨닫고 삼독(三毒)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④ 불교에서는 고통을 제거하여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⑤ 불교에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57 모범 답안 (1) 혜(慧)

(2)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58 제시된 글은 불교 윤리의 핵심인 연기설에 대한 설명이다. 불교에서는 연기설에 따라 인간이 겪는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은 유교 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② 화성기위는 유교의 순자가 강조하는 수양 방법이다. ③ 불교에서는 이성적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불성이 있다고 본다. ④는 도교 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59 불교에서는 어떠한 원인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연기설을 주장하며, 고통의 원인과 조건을 소멸시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라는 연기의 법칙을 깨달으면 내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는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불교 사상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고른 학생은 정이다.

바로알기 | 두 번째 입장: 불교에서는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 열반의 경지인 멸제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념 보충

사성제	
고제(苦諦)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음
집제(集諦)	인간이 겪는 고통은 무명(無明)과 애욕(愛欲)으로 인해 생겨남
멸제(滅諦)	고통의 원인인 무명과 애욕이 사라져 고통이 제거된 열반에 이르게 됨
도제(道諦)	무명과 애욕을 없애는 방법: 팔정도(八正道)

60 제시된 글은 불교 윤리 사상이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인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다. 따라서 연기(緣起)를 깨달아 타인의 깨달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불교에서 강조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인 보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은 도가, ②, ⑤는 유교의 바람직한 인간상이다. ④ 불교에서는 고정 불변하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61 제시된 글은 도가 사상이다. 도가에서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소박한 삶을 강조하고, 타고난 자연적 본성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인위적인 것이 배제된 무위자연의 삶을 강조하며, 인위적 문명의 발달이 없는 소국 과민의 사회를 지향한다.

바로알기 | ② 인의예지에 대한 수양을 통해 덕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유교의 입장이다.

62 제시된 글은 도가 사상이다. 도가에서는 인간의 인위적인 규범이나 제도에 반대하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은 유교에 대한 설명이다. ②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고 본다. ④는 불교, ⑤는 칸트의 의무론에 대한 설명이다.

63 제시된 글의 사상은 노자이다. 노자는 인위적인 규범이 인간의 소박한 본성을 해친다고 보고, 자연에 따르는 무위의 삶을 강조한다. 또한 작은 국가와 적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이상 사회인 소국 과민을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⑤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보고, 물이 가진 특성인 겸허와 부쟁의 덕을 인간이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⑤는 노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64 제시된 입장은 도가 사상가인 장자의 입장이다. 장자는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좌망과 심재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모든 차별이 사라진 정신적 자유의 경지인 제물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장자의 입장에만 모두 표시한 학생은 을이다.

바로알기 | 첫 번째 내용: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아(나)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한다는 것은 불교 사상이다. 네 번째 내용: 충서를 통해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유교 사상이다.

65 밑줄 친 '참된 사람(진인)'은 도가에서 강조하는 이상적 인간이다. 진인은 모든 차별이 소멸된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오른 인간을 의미한다. 진인은 지인(至人), 신인(神人), 천인(天人)이라고도 불리며, 정신적 자유의 경지인 제물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인은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파악하는 사람이다.

바로알기 | ③ 진인은 시비와 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다.

66 (가)는 도가 사상, (나)는 유교 사상이다. 도가에서는 인위적 문명의 발달이 없이 무위와 무욕의 삶을 추구하는 소국 과민을, 유교에서는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한다. 도가에서는 인위를 버리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유교에서는 군자가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③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사랑인 겸애를 주장한 것은 묵자이다. ⑤는 도가 사상에만 해당되는 입장이다.

67 갑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공자는 인(仁)을 인간의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으로 보고, 수양을 통해 도덕적 인격 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자는 도(道)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고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공자는 시비선악을 분별하여 도덕적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고, 노자는 시비선악에 대한 분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내면적인 도덕성을, 노자는 자연적인 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자와 노자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③, ④는 공자는 부정, 노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68 갑은 유교 사상가인 맹자, 을은 불교 사상가이다. 맹자는 모든 사람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였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연기설을 주장하며, 연기의 법칙(진리)을 깨달아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⑤는 도가의 입장이다. ② 도덕과 예의보다 강력한 형벌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법가이다. ④ 불교에서는 만물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연기에 따라 변화한다고 본다.

69 (가)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자연법을 강조하며,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으로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관한 진리 파악을 제시하였다. 아퀴나스의 입장에서 (나)의 A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언은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의무임을 잊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⑤는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③은 덕 윤리의 입장이다.

70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도덕 규칙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자연법은 영원법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퀴나스는 자기 보존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 자연법의 핵심 명제라고 본다.

바로알기 | 나른 칸트의 입장이다. 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신의 지혜인 영원법에 근거한다고 본다.

71 **모범 답안** 자연법의 제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다. 자연법의 제원리로부터 파생되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성향이다.

72 제시된 글의 서양 윤리 사상은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이다. 아퀴나스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자연법에 의거하여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명제를 윤리적 행위의 핵심으로 삼는다.

바로알기 | 다. 아퀴나스는 영원법으로부터 도출된 보편적인 자연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의 판단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상대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라. 아퀴나스의 입장에서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절대적인 법이고, 영원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73 제시된 글의 서양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영원법에서 비롯된 자연법과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에 따른 행위를 옳다고 판단한다. 또한 자연법 윤리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고 보고, 신과 사회에 관해 알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은 동물들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낙태는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적 성향에 어긋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관점에만 모두 표시한 학생은 정이다.

바로알기 | 네 번째 관점: 아퀴나스의 입장에서 자살은 자기 보존이라는 자연적 성향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이다.

74 (가)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며, 도덕 법칙은 보편주의와 인격주의를 특징으로 삼아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칸트의 입장에 따르면 거짓말은 보편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행위이다.

바로알기 | ②, ③, ④, ⑤ 칸트는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복과 같은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고, 인간의 욕구나 감정, 공감, 혹은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본다.

75 (가)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보편주의의 관점에서 '네 의지의 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라는 도덕 법칙을 제시함으로써, 도덕 법칙은 보편적이어야 하며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칙인 준칙과는 구별됨을 강조한다. 이러한 칸트의 입장에서 (나)의 A에게 거짓 약속이 보편적 도덕 법칙에 어긋나며, 친구를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라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나. 칸트는 결과에 상관없이 도덕 법칙이나 선의지에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76 **모범 답안** (1) 정언 명령 (2)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명령이다.

77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결과적으로 의무에 맞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무 의식과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면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칸트는 보편화할 수 없는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인인 준칙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⑤ 칸트는 상황이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인식하므로 타인의 행복이라는 결과를 고려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볼 것이다.

78 **모범 답안** ① '만약 네가 ~를 원한다면, ~를 해야 한다'라는 명령. ②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것이다.

79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가 항상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의지에 따라 오직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니며 여기에 행복은 고려되지 않

는다고 본다. 칸트에 따르면 의무 의식에 따라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도덕적인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도덕과 행복이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② 칸트는 '의무에 따르는 행위'와 결과적으로 '의무에 맞는 행위'를 구분하고 의무에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③은 덕 윤리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한 행위가 아닌,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파악한다.

80 갑 사상은 칸트이다. 칸트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할 것을 주장하며, 선의지에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문제 상황〉속 A는 거짓 약속을 할지 고민하고 있으므로 칸트의 입장에서는 거짓 약속이 선의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④, ⑤는 모두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이다.

81 제시된 글의 사상은 칸트이다. 칸트는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나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오직 의무 의식에서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내거나, 도덕 법칙에 따라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것이다.

바로알기 | 나. 칸트에 따르면 동정심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 다. 칸트는 장기적 이익이라는 결과를 위한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본다.

82 공리주의는 모든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존재라고 보고,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옳은 행위이며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그릇된 행위라고 본다. 즉, 행위의 결과가 가져다줄 쾌락과 행복을 중시한다. 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의 원리로 삼는다.

바로알기 | ④ 공리주의는 쾌락과 행복이라는 결과를 중시하여 동기와 과정은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83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며,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같으며 양적인 차이만 있기 때문에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벤담은 쾌락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강도, 지속성, 순수성, 확실성, 근접성, 범위, 생산성을 제시한다.

84 제시된 글의 사상은 벤담이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고,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 이익의 조화를 추구한다. 또한 행복이란 쾌락이자 고통이 없는 상태이며, 결과적으로 쾌락이 많고 고통이 적은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③ 벤담은 쾌락에는 양적 차이만 있을 뿐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85 (가) 사상은 벤담이다. 벤담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공리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벤담의 관점에서는 (나)의 A에게 관련된 사람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②, ④, ⑤는 모두 칸트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이다.

86 제시된 글의 서양 사상은 벤담이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쾌락은 질적인 차이가 없이 양적 차이만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벤담의 입장에만 모두 표시한 학생은 갑이다.

바로알기 | 세 번째 입장, 네 번째 입장: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과 쾌락의 우월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되는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밀의 입장이다.

87 **모범 답안** (1) ㉠ 행위 공리주의, ㉡ 규칙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에 따르면 행위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의 공리를 모두 평가하기 어렵고, 도덕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지속적인가? 얼마나 고통이 없이 순수한가?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근접해서 나타나는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얼마나 다른 쾌락을 생산하는가?

88 제시된 글의 사상은 밀이다. 밀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쾌락을 주는 행위는 선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악하다고 보며, 도덕적 행위와 사회적 행복의 실현이 양립 가능함을 강조한다. 밀은 쾌락에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 밀은 타인의 쾌락과 자신의 쾌락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89 갑은 밀, 을은 벤담이다. 밀과 벤담은 공통적으로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존재라고 보고,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의 원리를 도덕적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밀이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반면, 벤담은 쾌락에는 양적 차이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쾌락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⑤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판별할 때 여러 쾌락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90 밀과 벤담은 공통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더 많은 쾌락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나. 밀에게만 해당하는 입장이다. 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하므로, 밀과 벤담 모두가 부정할 입장이다.

91 (가)는 행위 공리주의, (나)는 규칙 공리주의이다. 행위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은 벤담으로, 행위 공리주의는 행위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규칙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행위 규칙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모두 유용성을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바로알기 | ④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는 모두 결과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고, 규칙 공리주의는 최대 공리를 산출하는 결과를 낳는 규칙이나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념 보충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선택함
규칙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규칙에 적용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최대의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함

92 (가)는 행위 공리주의, (나)는 규칙 공리주의이다. 행위 공리주의는 유용성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인 사

상가로는 벤담을 꼽을 수 있다. 반면, 규칙 공리주의는 유용성의 원리를 모든 행위에 적용하여 매번 행위의 공리를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최대의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모두 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알기 | ㉔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에 대한 동기가 아니라 규칙에 따른 결과를 중시한다.

93 갑은 행위 공리주의, 을은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모두 행복한 삶과 도덕적인 삶이 서로 일치할 수 있다고 보고,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 도덕적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용 대비 결과적으로 얻은 혜택을 분석하여 결과적 유용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바로알기 | ㄱ. 갑, 을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결과에 주목하므로,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94 (가)의 갑은 벤담, 을은 밀, 병은 규칙 공리주의자이다. 벤담은 쾌락의 양적 차이만을 인정하여 쾌락을 계산하고자 하고,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와 함께 질적인 차이까지 고려하고자 한다. 반면, 규칙 공리주의자는 벤담, 밀과는 달리 최대의 공리를 산출할 수 있는 규칙을 따르고자 한다. 하지만 벤담, 밀, 규칙 공리주의자는 공통적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옳은 행위라는 것에 동의한다.

바로알기 | ①은 을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는 갑의 입장에 해당한다. ③, ④는 칸트의 입장에 해당한다.

95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칸트는 오직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이나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인 행위라고 본다. 반면,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라고 보고, 쾌락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칸트의 입장에서는 벤담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도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④는 벤담이 칸트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② 칸트는 도덕 법칙을, 벤담은 공리의 원리를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이라고 주장하므로 칸트와 벤담 모두 동의할 내용이다. ③은 공리주의자 밀이 벤담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다.

96 밀출 친 '개인의 성품 또는 품성'을 도덕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윤리적 접근 방법은 덕 윤리적 접근이다. 덕 윤리는 기존의 행위 중심 윤리를 비판하고, 행위자의 성품을 먼저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7 갑은 덕 윤리학자인 매킨타이어이다. 덕 윤리는 윤리적으로 옳고 선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덕한 품성을 길러야 한다고 보고, 유덕한 성품을 갖추려면 강한 의지력을 길러 옳고 선한 행위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매킨타이어의 입장에서는 <문제 상황>의 A에게 선한 행위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유덕한 품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은 칸트, ③은 자연법 윤리, ④는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98 제시된 사상은 덕 윤리이다. 덕 윤리는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것보다 선을 지향하는 품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도덕적 삶을 위해서는 도덕 원리의 이행보다 덕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은 칸트, ②, ③은 공리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 덕 윤리는 도덕 원리에 대한 이해보다 행위자의 품성과 덕을 실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99 제시된 글의 고대 서양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의 탁월성을 발휘하는 상태로 보고, 덕을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구분한다. 특히,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가장 적절한 상태인 중용을 주장함으로써 자연적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중용에 적합하다면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음이나 선(善)이 상황과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②, ③은 칸트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자의 품성과 덕을 중시하고 구체적 상황 속에서 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100 제시된 글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지성적 덕은 교육을 통해 길러지고, 품성적 덕은 일상에서의 올바른 행위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따르는 덕 윤리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덕한 사람이 할 법한 것을 거듭 실천해야 하고, 도덕적 판단을 할 때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가 아닌 행위자의 품성과 덕에 주목한다.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본다.

101 제시된 글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이 올바른 행위의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인간이 지닌 실천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며 유덕한 품성을 기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만 모두 표시한 학생은 을이다.

바로알기 | 두 번째 입장, 네 번째 입장: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덕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지성적 덕은 교육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102 제시된 글의 사상은 매킨타이어이다.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며, 덕이 사회적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는 데 유용한 인간의 성품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 매킨타이어는 도덕 판단이 합리적 추론보다 상황적 맥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103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매킨타이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한 행위의 습관화를 강조하며 행위가 아닌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에서 공유하는 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삶의 구체적 상황과 맥락이 도덕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이 옳은 행위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길러진다고 본다. ㄴ. 아리스토텔레스와 매킨타이어는 모두 선한 행위가 유덕한 품성에서 나온다고 본다.

104 갑은 매킨타이어, 을은 칸트이다. 매킨타이어는 칸트의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와 같은 기존의 행위 중심의 윤리를 비판하고, 행위자의 성품을 먼저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행위자 중심의 윤리인 덕 윤리를 강조한다. 따라서 매킨타이어의 입장에서는 칸트에게 행위의 법칙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성품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은 규칙 공리주의, ②, ③은 칸트, ④는 질적 공리주의를 강조한 밀의 입장에 해당한다.

105 갑은 매킨타이어, 을은 칸트이다. 매킨타이어는 도덕이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칸트는 오직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② 매킨타이어는 덕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③ 칸트는 행위의 도덕 판단의 근거로 동기를 중시한다. ④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본다. ⑤는 칸트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106 제시된 사례는 뇌를 다친 철로 수리공의 예시를 통해 뇌와 도덕성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뇌 과학을 윤리와 접목시키려는 윤리학의 입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07 (가)는 신경 윤리학의 입장이고, (나)는 진화 윤리학의 입장이다. (가)는 뇌를 촬영한 영상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뇌 연구를 통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과학이 인간의 도덕성 형성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유전자의 진화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가), (나)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윤리적 행위를 과학적 탐구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④는 종교 윤리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108 제시된 글은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 문제를 과학에 근거하여 탐구하는 도덕 과학적 접근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은 신경 윤리학이다. 신경 윤리학에서는 도덕 판단 과정에서 이성이나 감정의 역할, 자유 의지나 공감 등 도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에 대해 어떤 요인이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끼쳤는지 과학적 측정 방법을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바로알기 | ㉡은 칸트, ㉢은 전통적 윤리학의 입장에 해당한다.

109 밑줄 친 '이 접근'은 도덕 과학적 접근이다. 도덕 과학적 접근은 인간의 이타적 행위를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진화 윤리학과 과학적 측정 방법을 통해 이성과 정서, 자유 의지나 공감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경 윤리학으로 구분된다.

바로알기 | ㉡은 배려 윤리, ㉢은 책임 윤리의 입장에 해당한다.

110 갑은 도덕 과학적 접근에 대한 입장을, 을은 칸트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도덕 과학적 접근에서는 칸트의 입장에 대해 인간의 이타적 행위가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임을 간과하고 있으며, 개인의 주관적 도덕 판단은 과학을 통해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 ㉢. 도덕 과학적 접근에서는 적자생존을 강조하는 자연 선택과 인간의 도덕성이 유관하다고 보고, 과학을 통할 때 인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3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개념 확인 문제

30쪽

111 (1) ○ (2) ×

112 (1) 일일삼성 (2) 소크라테스

난이도별 필수 기출

31~35쪽

113 해설 참조	114 ④	115 ⑤	116 ⑤	117 ⑤
118 해설 참조	119 ③	120 ①	121 ④	122 ③
123 ④	124 ①	125 ①	126 ⑤	127 ②
128 ③	129 ③	130 ⑤	131 ⑤	132 ②
			133 ②	134 ②

113 **모범 답안** (1) 사실 판단 (2) 철수네 할아버지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114 도덕적 추론이란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이 무엇인지에 관해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도덕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한다. 도덕 원리는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사실 판단은 사실적으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이어야 한다. 또한 도덕 판단은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 참이어야만 참이 될 수 있다.

바로알기 | ㉡. 사실 판단은 참·거짓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판단이므로, 도덕적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다.

개념 보충

도덕적 추론의 방법

도덕 원리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 가능하며,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검토함(보편화 결과 검사, 역할 교환 검사)
사실 판단	개념과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함
도덕 판단	도덕 판단을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함

115 제시된 도덕적 추론 과정에 따르면 ㉠은 도덕 원리에 해당하며 보편화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고, ㉡은 사실 판단이므로 가치 중립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가)에 들어갈 적절한 사실 판단은 '임신 중절은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이며, (가)에는 태아가 무고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은 도덕 원리인 ㉠과 사실 판단인 ㉡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된 도덕 판단이다.

바로알기 | ㉤ (가)에 대한 반론은 '인공 임신 중절은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적절하다.

116 갑은 '낙태는 태아가 인간으로서 지나는 불가침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도덕적 추론의 과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대전제(도덕 원리): 인간이 지나는 불가침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소전제(사실 판단): 낙태는 태아가 인간으로서 지나는 불가침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결론(도덕 판단): 낙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때 ㉢은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하여 내려진다.

바로알기 | ㉠은 ㉡에 대한 설명이다. ㉡ ㉠은 도덕 원리로 역할 교환 검사나 보편화 결과 검사를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은 사실 판단으로 개념과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에 대한 반론은 '낙태는 태아가 인간으로서 지나는 불가침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이다.

117 (가)에 제시된 도덕 추론 검사는 보편화 결과 검사이다. 보편화 결과 검사는 자신이 채택한 입장을 유사한 상황에 있는 모든 행위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는 '모두가 너처럼 한다면 시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라는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바로알기 | ㉡는 딜레마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취해 보는 역할 교환 검사에 해당한다.

118 **모범 답안** (1)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것이다.

(2)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119 도덕적 탐구란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조사, 분석, 비교, 평가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말한다. 도덕적 탐구는 ㉠ 윤리적 쟁점(딜레마) 확인 - ㉡ 자료 수집 및 분석 - ㉢ 입장 채택 및 정당화 근거 제시 - ㉣ 최선의 대안 도출 - ㉤ 반성적 성찰 및 입장 정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도덕적 탐구는 일반적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활용한 도덕적 추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이 채택한 입장이 보편화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바로알기 | ㉠.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윤리적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 도덕적 탐구는 이성적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면서도 공감, 배려 등의 정서적 측면도 중시한다.

120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도덕 판단이나 행위가 주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숙고해야 하며, 비도덕적인 수단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회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규칙이나 관습이 보편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지, 도덕 원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바로알기 | ㉠ 권위자의 판단과 명령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판적으로 검토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121 표는 도덕적 탐구 과정의 단계이다. 1단계의 ㉠ 딜레마란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3단계의 ㉡은 입장 채택으로 상대방 및 다양한 입장을 채택해 보는 과정을 의미한다. 5단계에서는 도덕적 탐구 과정을 통해 배운 점을 검토하는 반성적 성찰 및 입장 정리가 이루어진다.

바로알기 | ㉣ 3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검사는 역할 교환 검사와 보편화 결과 검사이다.

122 표는 도덕적 탐구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은 정당화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입장 채택 및 정당화 근거 제시'의 단계에 해당한다. ㉡은 자신의 입장을 채택하고 대안을 설정하는 단계로, 이성적 사고 못지않게 배려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딜레마에 관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역할 교환 검사나, 자신이 취한 입장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보편화 결과 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바로알기 | ㉢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는 논리적, 합리적 사고와 같은 이성적 사고뿐만 아니라 공감, 배려와 같은 정서적 측면도 중요하다.

123 제시된 글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 및 배려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자신의 지식에 대해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24 불교에서는 자신의 맑은 본성을 찾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 참선을 강조하고, 유교에서는 매일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는 일일삼성(一日三省)을 강조한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산파술을 강조한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며 살아야 한다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125 갑은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부단히 검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끊임없는 문답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산파술을 윤리적 성찰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성찰의 방법이다. ㉢ 소크라테스는 명성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삶에 반대하며, 영혼의 훌륭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등에 해당한다. ㉤ 소크라테스는 유용성보다는 옳음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개념 보충

윤리적 성찰의 방법

동양	유교	일일삼성(一日三省), 거경(居敬), 신독(慎獨)
	불교	참선(參禪)
서양	소크라테스	산파술(끊임없는 문답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도록 돕는 방법)
	아리스토텔레스	중용(감정 표현과 행동에서 적절함을 추구함)

126 갑은 소크라테스이고, 을은 유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숙고하는 삶을 통해 영혼의 훌륭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교는 매일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스스로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와 유교의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윤리적 교훈은 삶을 성찰함으로써 올바른 행위를 하고 삶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7 제시된 글에서는 불교의 수양법인 육바라밀을 통해 나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이기심을 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에서 강조하는 윤리적 성찰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선을 통해 삼독(三毒)을 제거하는 것이다.

바로알기 | ㉠은 장자가 제시하는 수양 방법이다. ㉢은 유교에서 제시하는 거경에 대한 설명이다. ㉣는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산파술에 대한 설명이다. ㉤는 유교에서 제시하는 일일삼성에 대한 설명이다.

128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부나 명예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부단한 검토를 통해 영혼의 훌륭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는 <사례> 속 A에게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충고할 수 있다.

129 갑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도덕적인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영혼을 수련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문제 상황>은 부나 명예를 위해 논문을 표절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130 제시된 글은 인간에게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개방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자세를 통해 인간이 내리는 판단이 힘과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토론을 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수정할 수 있는 개방된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31 ㉠에 들어갈 용어는 토론이다. 토론은 인간의 인식과 판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토론은 자기 생각의 한계와 오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해져야 한다.

바로알기 | ① 토론은 다수의 의견도 오류일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② 토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성찰할 수 있다. ③ 토론은 절대적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도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④ 토론은 인간이 지닌 오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132 제시된 글의 사상은 밀이다. 밀은 인간이 오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토론을 통해 인간이 지닌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보편적인 삶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밀은 인간이 지닌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므로 소수의 주장이 진리이고 다수의 의견이 오류일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밀은 과학적 지식조차도 오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것이다. ③ 밀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볼 것이다. ④ 밀은 토론의 목적이 상대방의 주장이 가진 오류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보편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⑤ 밀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따르는 견해도 오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133 제시된 글의 사상은 밀이다. 밀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로서 오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토론을 통해 기존의 오류를 수정하고 진리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 밀은 기존에 진리라고 여겨졌던 통설도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ㄷ.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며,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134 갇은 밀, 읊은 포퍼이다. 밀은 인간이 지닌 오류 가능성을 전제로 다수가 지지하는 견해도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론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포퍼는 토론을 통해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진정한 생각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밀과 포퍼 모두 인간의 오류 가능성에서 토론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진리라고 생각되던 다수의 의견이 오류이며 소수 의견이 진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바로알기 | ㄱ. ㄷ. 밀과 포퍼 모두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 하더라도 수정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며, 토론을 통해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 보편적인 삶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01~03강)

36~37쪽

135 ④ 136 ① 137 ⑤ 138 ① 139 ⑤ 140 ②
141 ⑤ 142 ③

135 제시된 동양 윤리 사상은 불교이다. 불교에서는 만물이 생멸·변화하기 때문에 고정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연기설을 강조한다. 또한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ㄷ. 불교에서 무명(無明)은 참된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136 (가)는 유교 사상, (나)는 도가 사상이다. 유교에서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인간의 도덕성 타락이라고 보고 현세에서 도덕적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가에서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인위적인 규범에 있다고 보고, 인간이 자연적 본성에 따라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 유교에서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 시비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ㄷ. 인위에 얽매이지 않고 도에 따른 삶을 강조하는 것은 도가만의 입장이다.

137 (가)는 도가 사상, (나)는 불교 사상이다. 도가에서는 만물의 근원인 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무위자연의 삶을 강조한다.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 만물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가에서는 인(仁)과 같은 인위적인 도덕규범이 사회 타락의 원인이라고 보고, 불교에서는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참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도가는 타고난 자연적 본성을, 불교는 타고난 불성을 중시하며 모두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기를 요구한다.

바로알기 | ㄱ은 유교 사상의 입장에 해당한다. ㄷ. 불교에서는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138 (가)의 갇은 매킨타이어, 읊은 칸트, 병은 밀이다. 매킨타이어는 도덕적 습관을 통해 선한 품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보다 도덕적 행위자가 되는 것을 강조하였다. 칸트는 감정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을 배제하고 선의지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 행위라고 보았다. 밀은 결과적으로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보고,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칸트는 감정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칸트가 제시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칸트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므로, 칸트에게 제시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④ 밀은 쾌락(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보았으므로, 밀에게 제시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매킨타이어는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사고를 강조하였으므로, 매킨타이어에게 제시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139 (가)의 갇은 밀, 읊은 벤담, 병은 칸트이다.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벤담은 모든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으므로 쾌락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칸트는 오직 의무 의식에 따라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인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칸트는 밀에게 쾌락과 같이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밀과 벨담 모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 ② 밀은 쾌락과 행복이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③ 밀과 벨담은 모두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④ 밀이 칸트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140 밀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때는 그러한 쾌락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벨담은 쾌락에는 양적 차이만 있다고 보고,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등을 기준으로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밀과 벨담은 모두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L은 벨담의 입장에 해당하므로 C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L. 벨담과 밀은 모두 유용성의 원리를 도덕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B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41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이성을 지닌 인간에게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이 반영된 자연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이러한 보편타당한 법칙에 따르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본다. 또한 아퀴나스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명제를 자연법의 핵심으로 삼는다.

바로알기 | L은 칸트의 입장이다.

142 (가)의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행위 공리주의 사상가, 병은 규칙 공리주의 사상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행위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의 결과를 각각 계산하여 더 많은 행복을 낳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고, 규칙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을 낳는 규칙을 선택하여 그 규칙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는 모두 도덕적 행위는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L은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L.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규칙이 그 자체로 도덕적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유용성을 낳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4 삶과 죽음의 윤리

개념 확인 문제

39쪽

- 143** (1) L (2) L (3) L **144** 이데아 **145** (1) - ㉠ (2) - L
146 (1) 소극적 안락사 (2) 소유권 논거 (3) 뇌사 (4) 잠재성 논거

난이도별 필수 기출

40~49쪽

147 해설 참조	148 ④	149 ③	150 ③	151 ⑤
152 ②	153 ①	154 ①	155 ④	156 ②
158 ②	159 ③	160 ⑤	161 ④	162 ①
164 ③	165 ④	166 해설 참조	167 ⑤	168 ④
169 ⑤	170 ①	171 ③	172 ③	173 ②
175 ④	176 ②	177 ③	178 ①	179 ①
181 해설 참조	182 ⑤	183 ①	184 ③	185 ⑤
186 ①	187 ③	188 ②		

147 **모범 답안** 공자. 공자는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실에서의 도덕적 실천을 더 중시한다.

148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죽음보다 현실에서의 도덕적 삶에 더 관심을 가지며, 의로움 같은 도덕적 가치가 삶과 죽음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유교에서는 ①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여기면서도 애도해야 한다고 보고, ②, ⑤ 죽은 뒤의 삶보다 현실을 더 중시한다. ③ 삶과 죽음을 응보의 과정으로 보는 것은 불교의 죽음관에 해당한다.

149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맹자이다. 유교에서는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여기면서도 애도의 대상으로 보며, 죽음보다는 현실의 도덕적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맹자는 의로움을 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유교에서는 삶 그 자체보다 도덕적 가치를 더 중시한다. ② 유교에서는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삶보다는 현실의 도덕적 삶을 더 중시한다. ⑤ 유교에서는 의로움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죽음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150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장자이다. 도가 사상가인 장자는 삶과 죽음이 기(氣)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죽음은 삶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순환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제물(齊物)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삶과 죽음을 평등하게 바라본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L은 불교의 관점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L은 유교 등의 관점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장자는 죽음을 애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죽음에 초연할 것을 강조한다.

151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된 자연의 순환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죽음에 초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죽음에 임하여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더불어 삶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도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바로알기 | ①은 에피쿠로스, ②는 하이데거, ③은 유교의 공자, ④는 불교의 죽음관에 해당한다.

152 제시된 글은 불교 사상이다. 불교에서는 연기설을 토대로 모든 것이 인연(因緣)에 의해 생겨났다 사라진다고 보고, 연기의 법칙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함을 깨달아 자기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는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의 모습이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본다. ㄷ. 불교에서는 죽음을 하나의 고통으로 인식한다.

153 불교에서는 죽음을 생(生), 노(老), 병(病)과 함께 대표적인 고통으로 인식하고, 현세의 업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윤회 사상을 제시한다.

바로알기 | ②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③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④ 불교에서는 삶의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를 열반으로 표현한다. 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으며 영원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154 갑은 장자, 을은 공자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이 서로 차별이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고, 죽음은 자연에 순응하는 하나의 과정이므로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공자는 죽음보다는 현실의 삶에서 도덕적 수양과 실천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 장자는 사후 세계를 주장하지 않았다. ③은 불교, ④는 장자, ⑤는 플라톤의 죽음관에 해당한다.

155 (가)는 유교, (나)는 불교의 죽음관이다. 유교에서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지만, 동시에 애도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불교에서는 현세의 업이 내세를 결정한다고 보고, 수행을 통해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ㄱ은 불교, ㄴ은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에 해당한다.

156 갑은 장자, 을은 맹자이다. 장자는 죽음이 기가 모이고 흠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고 보고, 맹자는 의로움을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ㄱ. 장자는 죽음에 대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맹자는 죽음을 애도의 대상이라고 본다. ㄴ. 죽음에 대한 알보다 현실에서 인간의 도덕성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맹자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바로알기 | ㄴ. 장자는 긍정, 맹자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ㄷ. 장자와 맹자 모두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둘 다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57 제시된 글의 사상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육체를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감옥이라고 보고, 죽음은 육체로부터 해방된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 자유와 참된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은 불교, ③은 에피쿠로스, ④는 유교의 죽음관에 해당한다.

158 서양 사상이 갑은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을 자각할 수 있으며, 인간은 죽음을 자각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④는 불교, ⑤는 플라톤의 죽음관에 해당한다.

159 제시된 글의 사상은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을 자각할 수 있으며,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고, 본래적 자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하이데거는 죽음을 주체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본다. ② 하이데거는 죽음으로 달려가 봄으로써 죽음이 항상 자신의 것

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본다. ④ 하이데거는 죽음의 불안을 외면하지 말고 죽음을 주체적으로 자각해야 한다고 본다. ⑤ 하이데거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제시하지 않는다.

160 제시된 글의 사상은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참된 인식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자각할 수 있다고 보고,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능동적으로 자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은 플라톤, ㄴ은 장자의 죽음관에 해당한다.

161 제시된 글의 사상은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사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자각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이데거가 지지할 입장에만 모두 표시한 학생은 정이다.

바로알기 | 두 번째 입장: 하이데거는 삶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위해서는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입장: 죽음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사상은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162 하이데거는 현존재인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자각할 수 있다고 보고,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는 죽음에 대한 선구(先驅)를 통해 삶을 성찰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 하이데거에게 죽음의 문제는 현존재가 겪는 실존적인 사건이다. ㄴ.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고 삶을 성찰함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163 갑은 플라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플라톤은 육체를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감옥으로 보고,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불멸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개별 원자로 흠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②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진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플라톤과 에피쿠로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플라톤은 육체를 영혼의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감옥이라고 본다. ④는 에피쿠로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플라톤은 죽음 이후 영혼의 순수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에피쿠로스는 죽음으로 인해 감각이 상실되어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두 사상이 모두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개념 보충

서양의 죽음관

플라톤	죽음 이후 영혼은 육체에서 해방되어 순수한 인식을 할 수 있음
에피쿠로스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흠어져 개별 원자가 되는 것임 → 죽음은 경험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
하이데거	현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을 자각할 수 있음 →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음

164 갑은 플라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순수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 인간은 감각을 상실하여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플라톤은 죽음 이후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②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불멸한다고 본다. ④ 에피쿠로스는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⑤는 불교의 죽음관에 해당한다.

165 갑은 플라톤, 을은 장자이다.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난 영혼이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한 과정이라고 본다. 장자는 삶과 죽음이 차별 없는 자연적 과정이라고 인식한다. 한편 플라톤과 장자는 모두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④는 유교의 죽음관에 해당한다.

166 **모범 답안** ㉔ 죽음 이후에는 인간의 모든 감각이 소멸되어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67 갑은 석가모니,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죽음이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봄과 동시에 깨달음을 통해 벗어나야 할 고통이라고 인식한다. 에피쿠로스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죽음을 통해 소멸되므로 죽음 이후의 인간은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⑤ 현세의 삶이 사후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은 석가모니만의 입장이다.

168 을은 에피쿠로스, 병은 장자이다.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장자는 죽음이 모였던 기가 흩어지는 현상이라고 보고, 죽음은 사계절의 변화와 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죽음에 대해 초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감각의 상실로 인식한다. ②는 불교의 입장이다. ③ 장자는 죽음이 자연의 과정이므로, 이에 대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169 (가)는 하이데거, (나)는 불교 사상의 입장이다. 하이데거는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이며,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직시할 수 있다고 본다. 불교에서는 현생에서 쌓은 인간의 선행과 악행이 죽음 이후의 내세를 결정한다고 보고,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깨달음을 얻어 윤회를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⑤는 플라톤의 죽음관에 해당한다.

170 갑은 플라톤, 을은 에피쿠로스, 병은 하이데거이다.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감각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고 본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인 인간이 죽음에 앞서 달려가 봄으로써 죽음을 자각하여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플라톤은 에피쿠로스에게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는 플라톤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③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④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실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⑤ 하이데거는 죽음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난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보지 않는다.

171 갑은 여성에게는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태아는 단순히 여성 몸의 일부라는 이유를 들어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 찬성한다. 반면

을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태아 역시 성인으로 성장할 잠재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 반대한다. 따라서 토론의 주요 쟁점은 인위적으로 수행되는 인공 임신 중절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여부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상충할 때 누구의 권리가 우선되는가이다.

바로알기 | ㄱ. 토론에서는 남성의 권리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 ㄴ. 토론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논의할 뿐, 자연적인 유산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172 갑은 태아가 인격체가 아니며 여성이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 찬성한다. 을은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는 이유로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 반대한다. 또한 을은 태아와 임신부가 가지는 생명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식하고, 인공 임신 중절을 인격체인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바로알기 | ㄱ. 갑은 태아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임신부의 권리가 태아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ㄴ. 임신부의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을 주장하는 것은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 찬성하는 갑만의 입장이다.

173 ㉔에는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들어가야 한다.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태아가 임신 순간부터 성인으로 발달할 잠재성이 있으며,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태아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 ㄷ은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시할 근거이다.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여성에게 자기 몸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가 있으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또한 배아와 인간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배아 단계는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할 수 없다고 본다.

174 제시된 글은 태아가 무고한 인간 존재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능력이나 자의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인격체가 가지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보고, 인공 임신 중절이 정당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는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반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므로, 태아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잠재적 인격체라는 것과 태아와 태아로부터 비롯된 인간이 연속성을 지닌다는 주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바로알기 | ㄱ. ㄷ은 모두 제시된 주장에 대한 찬성 논거로서 적절하다.

175 제시된 글은 인공 임신 중절이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고 보고,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는 모든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도 존엄하다는 것, 태아가 임신 순간부터 성인으로 발달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 잘못이 없는 인간을 해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태아 역시 무고한 인간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바로알기 | ㄴ은 인공 임신 중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지지할 근거이다.

176 갑은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을, 을은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므로 ㉔에는 인공 임신 중절에 찬성하는 근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 태아가 여성 몸의 일부이며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ㄷ은 모두 인공 임신 중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지할 근거이다.

177 제시된 글은 연명 치료의 중단을 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웰다잉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178 제시된 신문 칼럼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지에 대한 결정을 법으로 인정한 사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인간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관점을 따르고 있다.

바로알기 | ②, ③, ④는 모두 존엄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지할 근거이다. ⑤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없이 행해지는 안락사는 비자발적 안락사와 반자발적 안락사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반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존엄사가 될 수 없다.

개념 보충

안락사의 구분	
자발적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비자발적	환자는 직접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나, 가족이나 국가의 요구에 의한 경우
반자발적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179 제시된 글에서는 연명 치료의 중단을 의미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구분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할 수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연명 치료의 중단을 의미하는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환자에게 적극적 처치를 함으로써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은 살인 행위라고 볼 것이다.

바로알기 | 다. 제시된 글은 안락사 허용 여부를 결과적 유용성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라. 의사가 선한 의도로 행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죽음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180 (가)를 주장한 사람은 삶이 고통스럽다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나)의 A는 안락사이다. 따라서 (가)의 입장에서는 환자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를 인정해야 하므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②는 사회적 영향이나 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③ (가)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아닌 개인이 느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택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가)는 죽음에 대한 결정권이 환자 개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181 **모범 답안** (1) 환자가 직접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으나 가족이나 국가의 요구가 있는 상황

(2) 연명 치료를 중지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182 갑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환자가 안락사를 원한다면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안락사가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므로 살인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은 안락사로 인한 결과적 측면을 고려하므로, 의사와 의논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으며, 안락사를 통해 부족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정을 지지할 것이다.

바로알기 | 나. 환자의 삶의 질보다 환자 생명의 소중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지할 근거이다.

183 제시된 글은 뇌가 인간의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

문에 뇌 기능의 정지를 죽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뇌사 판정에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뇌사 판정이 장기 이식을 위해 이루어질 경우 생명을 수단으로 취급하게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논거만을 모두 표시한 학생은 갑이다.

바로알기 | 두 번째 입장, 네 번째 입장: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뇌 기능이 정지되면 점차 심장의 기능도 정지되고, 뇌사를 통해 부족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184 갑은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 을은 뇌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갑은 뇌가 인간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핵심 기관이므로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을은 뇌사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연명 의료 기기를 이용하면 호흡과 심장 박동이 유지되기 때문에 심장과 폐의 정지만이 죽음의 판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②는 을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 을은 죽음을 모든 유기체적 기능의 영구적 상실로 파악한다. ⑤는 갑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185 제시된 글은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뇌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뇌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심장과 폐 기능 정지를 의미하는 심폐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유기적 인격체의 인간다운 삶은 뇌가 아닌 심장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또한 뇌사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뇌사 상태 환자의 소생을 위한 시도는 필요한 의료 행위이며, 뇌사를 인정함으로써 장기 이식이 가능하다는 논의처럼 인간의 죽음을 실용적 동기에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⑤는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86 갑은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뇌사에 찬성하는 입장, 을은 심폐사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한다. 갑은 뇌를 인간의 핵심 기관으로 보고 뇌 기능의 정지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데 반해, 을은 뇌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의 기능까지 모두 정지된 상태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뇌사자의 장기 이식을 통한 의료적 효용을 강조하는 갑에 비해 을은 인간이 실용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존엄한 존재임을 강조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②, ③, ④, ⑤는 을보다 갑이 강조할 내용이다.

187 갑은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심폐사를 지지하는 입장을, 을은 뇌사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다. 갑은 죽음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취하며, 심폐 기능의 불가역적 상실만을 죽음으로 인정한다. 을은 뇌 기능의 정지를 죽음으로 인정하며,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사회적 유용성을 증대한다고 본다. 갑, 을은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바로알기 | ③ 뇌사 판정의 오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뇌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근거이다.

188 갑은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뇌사를 지지하는 입장을, 을은 심폐사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다. 갑은 실용적 관점에서 뇌사자의 장기 이식을 들어 뇌사를 지지한다. 을은 인간의 인격이 뇌에서 비롯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생명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뇌사에 반대하고 심폐사를 지지한다. 한편 갑, 을은 모두 인간의 인격이 심장이 아니라 뇌에 의존한다고 생각한다.

바로알기 | ①은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은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⑤는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개념 확인 문제

50쪽

189 ㉠ 배아 복제 ㉡ 개체 복제

190 (1) ○ (2) ×

난이도별 필수 기출

51~55쪽

191 ③	192 ②	193 ②	194 ①	195 ②	196 ②
197 ②	198 ⑤	199 ②	200 ④	201 ②	202 ②
203 ②	204 ①	205 ④	206 해설 참조	207 ③	
208 ②	209 ①	210 ②	211 ④		

191 제시된 글은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에는 배아 복제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배아가 성장해서 존재할 생명체와 배아는 동일한 존재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②, ④, ⑤는 모두 배아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시할 근거이다.

192 제시된 글에서는 수정된 지 14일 미만의 배아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배아 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과학계의 입장과, 배아 복제가 결국 인간 복제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종교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에는 배아 복제에 반대하는 근거가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배아 자체도 하나의 생명이며, 배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바로알기 | ②는 배아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시할 내용으로 적절하다.

193 (가)는 인간 배아 복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나)는 인간 배아 복제에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는 인간 배아와 인간의 유전자는 동일하여 배아는 이후에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며, 인간의 발달 과정은 연속적이어서 선명한 경계를 나눌 수 없다고 본다. (나)는 배아가 인간이 될 잠재성은 있으나 아직 완전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지만, 의학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배아 복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은 (나)의 입장에 해당한다. ③ (나)는 인간 배아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④ (나)는 인간 배아가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닌 존재이기는 하지만 인간과 도덕적 지위가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⑤는 (가)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194 갑은 배아 사용에 대해 찬성하고, 을은 배아 사용에 대해 반대한다. 갑은 배아가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인간이 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배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반면 을은 배아 역시 인간과 동등하게 존엄하므로 배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가 살인과도 같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ㄷ. 갑은 의학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간의 잠재성을 지닌 배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을은 배아가 인간과 동등한 존재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ㄹ은 을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195 갑은 배아 복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을은 배아 복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갑은 유용성의 관점에서 배아 복제를 통해 난

치병 치료, 유전병 치료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을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인간이 책임져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인간 배아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은 갑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갑은 인간 배아가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④는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는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96 (가)는 배아 연구에 대한 찬성 입장이고, (나)는 배아 연구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따라서 (가)는 배아 연구가 난치병, 불치병 치료나 신약 개발과 같은 공동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나)는 배아가 인격체이므로 배아를 파괴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생명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197 (가)는 칸트의 관점이다. 칸트는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적 행위가 있음을 강조하며,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나)에서는 배아 복제 기술과 개체 복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관점에서는 (나)의 주장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④, ⑤는 모두 도덕적 의무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결과를 고려한 행위라 할 수 있다. ③ (가)는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므로 생명 의료 기술의 발전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198 갑은 배아 복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을은 배아 복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갑은 복제된 배아는 인공물에 불과하므로 인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을은 배아와 인간이 모두 도덕적 지위를 동등하게 지니므로 미래의 인격체가 될 배아를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갑은 배아 복제를 찬성하지만 남녀의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생긴 배아는 존엄한 생명체라고 보고, 을은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복제된 배아 모두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갑, 을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한다.

바로알기 | ㄱ은 을의 입장에 해당한다.

199 제시된 글에서는 인간과 달리 복제 인간은 날 때부터 누군가의 사본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전제 조건인 '무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에는 복제 인간이 원초적 무지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00 (가)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 난치병을 치료하고,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날 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난치병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배아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 데 악용될 수 있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배아 단계에서의 실험을 허용하는 정도'는 낮고, 'Y: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정도'는 높으며, 'Z: 자식의 유전자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정도'는 낮으므로 ㉡에 해당한다.

201 갑은 인류 복지 증진과 난치병 치료와 같은 사회적 유용성을 위해 배아 줄기 세포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을은 줄기 세포 연구가 필요하지만, 배아 줄기 세포 연구는 배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

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은 ‘배아 줄기 세포 연구를 금지해야 하는가?’가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갑, 을은 모두 성체 줄기 세포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③ 갑, 을은 모두 배아 줄기 세포 연구가 배아를 파괴할 수 있다고 본다. 단, 갑은 배아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 파괴되어도 무방하다고 보고, 을은 배아 역시 성인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므로 배아 줄기 세포 연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④는 갑, 을 모두 긍정할 질문이다. ⑤ 갑, 을 모두 배아 줄기 세포가 난치병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02 (가)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모든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함을 주장한다. (나)에서는 부모의 주문에 따른 맞춤형 아기에 대한 홍보 글이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의 관점에서는 (나) 사례에 대해 태어날 아기를 생명 그 자체로 존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203 갑은 모든 형태의 유전자 치료에 대해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들어 반대한다. 을은 유전자 치료를 체세포 치료와 생식 세포 치료로 구분하고,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체세포 치료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갑은 유전자에 대한 어떠한 인위적 개입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을은 유전자 조작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후세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나. 갑, 을 모두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르. 을은 체세포 치료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를 구분하고,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가 후세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개념 보충

유전자 치료의 구분	
체세포 유전자 치료	유전 물질을 환자의 체세포에 삽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 주로 질병 치료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	수정란이나 발생 초기의 배아에 유전 물질을 삽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 생식 세포에 영향을 주어 후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04 갑은 맞춤형 아기에 대해 찬성하고, 을은 맞춤형 아기에 대해 반대한다. 갑은 맞춤형 아기를 통해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원하는 아기를 얻을 수 있다는 생명 공학의 사회적 효용성에 주목한다. 반면 을은 생명 그 자체의 고유성을 강조하며, 맞춤형 아기가 인간을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에 반대한다.

바로알기 | 나. 생명 공학의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갑이다. 르는 갑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205 (가)의 갑은 모든 형태의 유전자 조작과 변형에 대해 반대하고, 을은 치료를 위한 예방적 조작에는 찬성하나 우생학적 조치인 개량적 조작에는 반대한다. 즉, 갑은 인간 유전자를 조작하는 모든 행위가 미래 세대에 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보고, 을은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개량적 조작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갑, 을은 모두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유전자 조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나. 갑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206 **모범 답안**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의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우생학을 부추길 수 있다.

207 갑은 동물 실험에 찬성하고, 을은 동물 실험에 반대한다. 갑은

동물이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의학 발전을 위해서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을은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차이가 있더라도 인간을 위해 동물을 의도적으로 희생해서는 안 되므로 동물 실험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은 ‘동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한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가?’가 가장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은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는 갑, 을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갑은 동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동물 실험이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을은 동물 실험이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⑤는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208 칼럼에서는 동물 실험의 결과가 동물에게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동물 실험의 결과가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칼럼에서는 동물 실험의 확실한 대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④, ⑤는 모두 동물 실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 해당한다.

209 제시된 글에는 동물 실험에서 지켜야 할 3R 원칙인 대체, 개선, 감소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서 인간 외의 생명도 존중하고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동물 실험의 3R 원칙은 생명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동물 실험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④ 생명을 다룰 때 행위의 결과에만 주목한다면 동물 실험이 확대되어 과도하게 동물을 희생시킬 수 있다.

210

• 쾌고 감수 능력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든지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싱어이다. 싱어는 동물 또한 인간처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이익도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며, 인간과 동물의 종(種)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② 이성을 가진 존재는 인간을 의미한다. 싱어는 인간뿐만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 또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본다.

211 싱어는 동물에게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고 보고,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종과는 무관하게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나. 싱어는 인간과 동물의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인간과 동물이 가진 종의 차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6 사랑과 성 윤리

개념 확인 문제

57쪽

- 212 (1) 인격적 (2) 보호 213 (1) - ㉠ (2) - ㉡ (3) - ㉢
214 (1) 성의 자기 결정권 (2) 가족 해체 현상 (3) 배려 윤리
215 (1) ㄱ (2) ㄴ

난이도별 필수 기출

58~65쪽

- 216 ③ 217 ② 218 ⑤ 219 ② 220 ③ 221 ③
222 ③ 223 ④ 224 ② 225 ① 226 ④ 227 ④
228 성의 자기 결정권 229 ⑤ 230 ⑤ 231 ① 232 ⑤
233 ② 234 ③ 235 ② 236 ④ 237 ③ 238 ④
239 ⑤ 240 해설 참조 241 ② 242 ④ 243 ①
244 ③ 245 해설 참조 246 ① 247 ③ 248 ⑤
249 ② 250 ㉠ 혼전신성, ㉡ 불감훼손 251 ① 252 ③

216 제시된 글의 사상은 프로름이다. 프로름은 사랑이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본다.

217 프로름은 사랑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능동적 활동이라고 보고, 진정한 사랑은 인간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프로름은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주도된 사랑은 실패한다고 본다. ③ 프로름은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고 본다. ④ 프로름은 사랑의 기술로 보호, 책임, 존중, 이해를 제시하며, 이러한 사랑의 기술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주장한다. ⑤ 프로름은 사랑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파악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본다.

개념 보충

프로름이 주장하는 사랑의 특징

책임	사랑은 상대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임
이해	사랑은 상대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며, 상대방을 깊게 이해하는 것임
존경	사랑은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임
보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임

218 사랑은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또한 사랑은 인간을 도덕적인 생활로 이끌고 인간 상호 간에 인격적 교감을 가능하게 한다. 성은 생물학적 성, 사회·문화적 성, 욕망으로서의 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사회·문화적 성은 사회·문화적인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바로알기 | ㄱ. 성적 관심이나 성적 욕망과 관련되는 성 개념은 욕망으로서의 성이다. ㄴ. 프로름은 사랑의 구성 요소로 보호, 책임, 존경, 이해를 제시하였다.

219 밑줄 친 입장은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보수주의의 관점이다. 보수주의는 성이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할 때만 도덕적이라 보고,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정당하며 혼전이나 혼외 성적 관계는 부도덕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은 사랑과 성에 관한 중도주의의 관점에 해당한다. ㄹ은 사랑과 성에 관한 자유주의의 관점에 해당한다.

220 성과 사랑에 대해 갑은 보수주의, 을은 자유주의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갑은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가진 부부의 사랑이 전제된 성적 관계만이 정당하다고 본다. 을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로 자발적 합의에 기초한다면 모든 성적 관계가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서로 합의한 관계에서의 성행위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갑은 성행위의 본질이 사회 안정과 종족 보존임을 강조한다. ②는 보수주의 입장에서 할 수 없는 비판이다. ④는 자유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⑤는 갑, 을이 모두 긍정할 내용이다.

221 성과 사랑에 대해 갑은 중도주의, 을은 보수주의, 병은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갑은 성과 결혼이 별개의 것으로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며, 을은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관계만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병은 출산과 양육의 안정성보다는 성적 자유와 자발적 동의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갑, 을, 병은 모두 성이 서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바로알기 | ㉠ 을은 성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정당화되기 때문에 후세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222 성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갑은 자유주의, 을은 중도주의, 병은 보수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갑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는 정당하다고 본다. 을은 성적 관계의 정당화 기준을 사랑이라고 보고, 병은 결혼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정당하다고 본다. 을, 병은 모두 성적 관계에서 사랑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므로 성이 인격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바로알기 | ㄴ은 병의 입장에 해당한다. ㄷ. 병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결혼이 성적 관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본다.

223 성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갑은 보수주의, 을은 중도주의, 병은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갑은 결혼을 통한 출산으로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성이 도덕적이라고 보고, 을은 성의 고유한 가치는 사랑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전제로 한 성은 도덕적이라고 본다. 병은 사랑과 무관한 쾌락적 가치의 성도 도덕적일 수 있다고 보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발적 합의만 전제된다면 모든 성이 정당하다고 본다. 갑, 을, 병은 공통적으로 성의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 을은 상호 간 자발적 합의만이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한 성이 도덕적이라고 본다.

224 성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갑은 자유주의, 을은 중도주의, 병은 보수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갑은 자발적 동의와 타인에 대한 해악 금지, 을은 사랑을, 병은 결혼과 출산을 도덕적으로 정당한 성적 관계의 기준으로 삼는다. 한편 중도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을은 생리적인 욕구보다 성의 인격적인 교감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갑은 자발적 동의를 성적 관계의 정당화 근거로 삼는다. ③ 병은 성의 쾌락적 가치보다 생식적 가치를 중시한다. ④ 을은 성의 인격적 측면을 강조한다. ⑤ 갑, 을, 병 모두 개인의 선택을 전제로 한 성을 중시한다.

225 성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갑은 보수주의, 을은 중도주의, 병은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갑은 결혼이나 출산처럼 오직 사회 구성원

의 재생산을 전제로 한 성만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과 무관하게 을은 사랑을, 병은 자율성을 기준으로 성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을은 정당한 성적 관계의 기준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 병은 사랑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호 간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성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ㄷ. 을은 성행위에 사랑이라는 일정한 도덕적 제약이 필요하다고 본다. ㄹ. 병은 성적 관계의 기준을 제시하며 성적 관계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라고 본다.

개념 보충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	
보수주의	•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 윤리 •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정당하다고 봄
중도주의	• 사랑 중심의 성 윤리 • 사랑을 동반한 성적 관계는 결혼과 무관하게 정당하다고 봄
자유주의	•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 중심의 성 윤리 • 자발적 동의에 따른다면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도 정당하다고 봄 → 성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 중시

226 성차별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주로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성차별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여성과 남성 모두의 자아실현을 방해한다.

바로알기 | ④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은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227 성 상품화란 성 자체를 상품처럼 사고팔거나 다른 상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 상품화는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성이 가진 인격적인 가치를 훼손하며, 성을 경제적 수단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알기 | 정: 성을 이용한 이윤 추구 행위가 자본주의의 논리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성 상품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이다.

228 모범 답안 성의 자기 결정권

229 제시된 글은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성의 자기 결정권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갖는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바로알기 | 성의 자기 결정권은 ㄱ. 스스로 원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ㄴ.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230 갑은 성 상품화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상품 판매에 성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을은 성 상품화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성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을은 성 상품화에 반대하므로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하여 성을 도구화하는 것도 성 상품화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②, ③, ④는 모두 성 상품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제시할 근거이다.

231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보부아르이다. 보부아르는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율적 선택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에게 예속되어 비주체적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부아르는 남성과 여성의 위계적 질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ㄴ. 보부아르는 여성이 남성과 같이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ㄹ. 보부아르는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관계가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조건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232

→ 여성의 정체성이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라고 봄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자답다는 관념은 습관이나 유행에 따라 인위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외부에서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요된다. 그런 여자다움도 시대와 함께 변화될 수 있는데, 남성들이 채택하는 표준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변화된다. 한 인간의 우월성은 결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 남성 중심의 권력에 의해 여자다움이 규정된다고 봄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보부아르이다. 보부아르는 여성을 남성에게 예속된 존재로 파악하는 잘못된 사회적 조건이 왜곡된 여성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부아르는 여성의 정체성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 보부아르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와 제도가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낳았다고 본다. ② 보부아르는 그동안 여성이 남성에게 예속된 비주체적 존재로 살아왔다고 본다. ③ 보부아르는 여자다움이 사회 속에서 구성된 사회적 산물이라고 본다. ④ 보부아르는 고정된 성 역할에서 벗어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233 배려 윤리는 보편적·추상적 도덕 원리를 강조하는 정의 윤리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 공감과 동정심, 인간관계와 책임 등을 중시하는 여성 중심 윤리이다. 배려 윤리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정의 윤리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은 공리주의, ④는 덕 윤리, ⑤는 담론 윤리의 입장에 해당한다.

234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길리건이다. 길리건은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을 구분하고 독립성은 정의 윤리에 의해 정당화되고, 친밀성은 배려 윤리에 의해 지지된다고 본다. 길리건은 남성의 도덕성을 대변하는 정의 윤리와 여성의 도덕성을 대변하는 배려 윤리가 상호 보완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35 제시된 사상은 배려 윤리이다. 배려 윤리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 배려, 상호 의존성, 유대감 등을 중시하며 배려와 관계성 개념을 중심으로 도덕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배려 윤리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근거로 한 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은 칸트, ③은 공리주의, ⑤는 정의 윤리의 입장에 해당한다. ④ 배려 윤리에서 배려를 실천하는 것은 이익 산출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236 밑줄 친 '이 사상'은 나딩스의 배려 윤리이다. 나딩스는 배려를 상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요구를 이해하고, 배려받는 사람은 배려를 수용하면서 적절히 반응해야 배려가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나딩스의 배려 윤리는 기존의 남성 중심주의 윤리를 보완하며 여성의 목소리를 강조하고,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 간의 상호 보완을 주장한다. 또한 배려의 범위를 친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낯선 타인, 나아가 동식물과 자연환경에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바로알기 | 르은 정의 윤리의 입장에 해당한다. 배려 윤리는 배려, 공감, 관계성, 책임 등을 우선적으로 중시한다.

237 제시된 글의 사상은 길리건이다. 길리건은 배려, 책임, 관계, 맥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 중심의 윤리를 주장하며, 기존의 남성 중심의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의 상호 보완을 강조한다. 이처럼 길리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과 유대감을 중시하고, 추상적 도덕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윤리 문제를 배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바로알기 | 르은 덕 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르. 길리건은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를 구분하고, 정의 윤리에 대한 전적인 거부감이 아니라 양자의 상호 보완을 주장한다.

238 제시된 사상은 배려 윤리이다. 배려 윤리는 자연적 감정을 윤리적인 행위의 원천이라고 보고, 배려, 공감, 관계성 등을 강조한다. 따라서 동정심에서 유발된 행위는 자연적 감정인 공감으로부터 비롯된 행위이므로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칸트의 도덕 법칙이나功利주의의 최대 행복의 원리와 같은 추상적인 도덕 원리보다 구체적 상황에서 직면하는 인간관계의 상황적 맥락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배려 윤리의 관점에만 모두 표시한 학생은 정이다.

바로알기 | 두 번째 관점: 배려 윤리에서는 추상적 원리보다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239 갑은 길리건, 을은 나딩스이다. 길리건은 여성과 남성의 도덕성을 구분하고 관계성과 배려를 강조하는 여성 중심의 배려 윤리를 주장한다. 나딩스는 배려의 상호성을 강조하며 타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윤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길리건과 나딩스는 공통적으로 시비(是非)에 대한 명확한 구분보다 배려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배려 윤리는 ① 여성과 남성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고, ②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추구한다. 또한 ③ 추상적 원리보다 맥락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며, ④ 이성보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우위에 두고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240 **모범 답안** (1) ㉠ 정의 윤리

(2) ㉡ 배려 윤리. 배려 윤리는 배려, 공감, 관계성과 같은 여성적 특징을 중시하는 윤리이다.

(3)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241 (가)의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길리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옳고 선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길리건은 공동체와 인간관계의 맥락을 바탕으로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 대한 유대감이나 상호 의존성을 중시함으로써 배려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두 사상은 모두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르. 아리스토텔레스와 길리건은 모두 상대방의 내면적 특성이나 감정을 고려해서 행위해야 한다고 보므로, A에 들어가야 한다. 르. 아리스토텔레스와 길리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242 갑은 길리건, 을은 칸트, 병은 벤담이다. 길리건은 타인과의 유대감, 책임 등을 중시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이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인간이 자율적으로 세운 도덕 법칙이 도덕의 근거임을 강조한다. 벤담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인식하며,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는 옳은 행위이고 고통을 가져오는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라고 본다. 칸트는 도덕 법칙을, 벤담은 최대 행복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두 사상이 모두 보편적인 행위 원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④ 이성보다 공감이 도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길리건의 입장이다.

243 밑줄 친 '이것'은 가족이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집단으로 사랑의 공동체이며,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화 및 건강한 삶의 토대가 된다. 또한 가족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예절을 배우고,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바로알기 | ①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의미하며 반드시 혈연관계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44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의 윤리에 따르면 부부는 남녀 간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를 실천해야 한다. 형제자매 간에는 서로가 한 몸처럼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때 형제자매 관계는 순서가 있는 수직적 관계이면서도 동기간이라는 수평적 관계이다.

바로알기 | ① 부부는 음양론에 따라 각자의 특성에 알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고정 불변의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② 효란 물질적인 봉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헤아려 실천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는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④ 자식이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효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모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요구한다면 부모에게 간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온전히 하는 것(불감행상)은 효의 시작이고, 후세에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하는 것(입신양명)은 효의 완성이다.

개념 보충

동양의 부부 윤리

부부유별	부부간의 역할을 구별하여 상호 존중해야 함
상경여빈	부부가 서로를 손님같이 대해 서로 공경해야 함
음양론	부부는 자연의 음과 양의 관계처럼 상호 보완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야 함

245 **모범 답안** 가족 해체 현상이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나 가족 전체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246 제시된 글은 음양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음양론은 우주를 구성하는 음과 양이 서로를 존립 가능하게 하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음양의 원리는 부부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의 바탕이 된다. 음양론에 따르면 부부는 각자의 특성에 알맞은 역할을 대등하게 수행해야 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바로알기 | 르. 음양론에 따르면 부부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차별적 대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르. 음양의 원리에 따르면 부부는 위계적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이다.

247 제시된 글의 '나'는 전통적 음양론에 근거하여 부부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며 대등한 관계라고 본다. 이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부부 관계를 설명한다. ㉠에는 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들어가야 하므로, 음양은 구별되지만 차등 관계가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② 나는 남녀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부를 혈연관계로 규정하지 않는다. ④ 나는 음양의 논리를 적용하여 남녀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⑤ 남녀는 음양의 조화로 형성된 대등한 형제 관계이다.

248 그림의 강연자는 형제간의 윤리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형제는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동기(同氣)라는 점에서 수평적인 형제 관계이면서도, 연령의 차이를 통해 장유유서의 도리를 깨닫는 수직적인 관계이다. 또한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하면서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수족지(手足之義)의 관계이기도 하다.

바로알기 | ⑤ 형제는 같은 혈족의 직계에서 갈라져 나간 계통 사이의 대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형제자매 관계는 같은 형렬이다.

249 ㉠에 들어갈 말은 ‘형제’이다. 형제는 혈연관계이자 상호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한다는 형우제공(兄友弟恭)을 실천해야 한다.

바로알기 | ㉡. 형제는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인 관계이다. ㉢은 부부 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250 **모범 답안** ㉠ 혼정신성(昏定晨省), ㉡ 불감훼손(不敢毀傷)

251 제시된 글에는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불감훼손은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효의 시작이며, 입신양명은 자신의 이름을 떨치는 것으로 효의 완성이다. 혼정신성은 아침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이고, 불욕은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알기 | ㉠ 부모의 뜻을 헤아려 정신적 측면에서 잘 모시는 것은 양지(養志)에 해당한다. 공대는 표정을 항상 부드럽게 하여 부모가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다.

252 신문 칼럼은 맹자의 사상을 예로 들어 물질적 봉양과 함께 부모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정신적 봉양인 양지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칼럼의 제목은 물질적 봉양과 정신적 공경을 병행하여 효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04~06강)

66~67쪽

253 ⑤ 254 ⑤ 255 ② 256 ④ 257 ③ 258 ①
259 ① 260 ②

253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에 대해 성찰할 수 있으며,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죽음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의식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자각은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개개인이 가진 본래적인 실존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254 (가)의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장자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감각의 상실로 파악하고, 인간은 감각의 상실로 인해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기(氣)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임을 인식하며 죽음에 초연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죽음이 모든 존재의 원리인 도(道)에 근거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장자는 죽음이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② 에피쿠로스, 장자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은 장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는 불교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255 갑은 공자, 을은 플라톤이다. 공자는 죽음 이후보다 현실의 도덕적 삶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고,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된 영혼이 비로소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두 사상가는 모두 인간이 마땅히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은 공자는 긍정, 플라톤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④는 공자는 부정, 플라톤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공자는 내세의 편안함을 위해 현세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관심보다 현세의 도덕적 삶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256 (가)의 갑은 플라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육체에서 해방된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으면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플라톤과 에피쿠로스 모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바로알기 | ㉡.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참된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고 보며, 육체를 떠난 영혼도 실재할 수 있다고 본다.

257 (가)의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플라톤, 병은 장자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플라톤은 육체를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보고, 죽음 이후에야 영혼이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서로 연결된 순환의 과정으로 인식하며 죽음에 초연할 것을 강조한다. 세 사상가는 모두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은 불교에서 긍정할 입장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원자가 흠어지는 현상으로 보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ㄴ, 장자는 죽음을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순환의 과정이라고 보고, 죽음을 고통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258 (가)는 뇌사에 반대하는 입장, (나)는 뇌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는 뇌사 판단의 오류 가능성과 뇌사 판정이 장기 이식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뇌사에 반대한다. (나)는 장기 이식을 통한 사회적 공리 증대, 환자 및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의 감소라는 점을 들어 뇌사에 찬성한다. 따라서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정도'는 낮고, 'Y: 죽음 판정을 통한 경제성을 강조하는 정도'와 'Z: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강조하는 정도'는 높으므로 ㉠에 해당한다.

259 (가)의 갑은 벤담, 을은 아리스토텔레스, 병은 길리건이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주장하며,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고 양적인 차이만 있기 때문에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인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를 덕이라고 주장하고, 유덕한 사람은 도덕적 행위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덕을 갖추 수 있게 된다고 본다. 또한 도덕적 행위를 할 때 보편적 도덕 원리보다 행위자의 덕성을 중시한다. 길리건은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을 구분하고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공감, 배려, 책임 등을 강조하는 배려 윤리를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 아리스토텔레스와 길리건은 모두 인간관계와 구체적인 맥락을 중시한다. ㄹ은 자연법 윤리에 해당하는 입장이다.

260 (가)는 형제자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족지(手足之義)'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자식이 부모에게 행해야 할 도리인 효(孝)에 대한 설명이다. (가)는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는 형우제공(兄友弟恭)의 실천이 자식의 도리인 효에 포함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가)는 형제자매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자, 동시에 서로 아끼고 돕는 관계라고 본다. ③ (나)는 이름을 널리 떨치는 입신양명이 효의 완성이라고 본다. ④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인 불감훼상이 효의 시작이라고 본다. ⑤ 상경여빈(相敬如賓)은 부부간에 지켜야 할 윤리로, 부부가 친밀한 사이이지만 서로를 손님 대하듯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대(恭待)는 표정을 항상 부드럽게 하여 부모가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게 하는 효의 실천 방법이다.

7 직업과 청렴의 윤리

개념 확인 문제

69쪽

261 (1) ㄷ (2) ㄱ (3) ㄴ

262 (1) - ㉠ (2) - ㉡ (3) - ㉢

263 (1) 애로우 (2) 프리드먼

264 (1) 독점성 (2) 청렴

(3) 노블레스 오블리주

난이도별 필수 기출

70~77쪽

265 ③	266 ③	267 ④	268 ②	269 ④
270 해설 참조	271 ③	272 ②	273 ①	274 ④
275 ②	276 ②	277 ③	278 ④	279 ①
280 ④	281 ③	282 ④	283 ③	284 ②
285 ④	286 ④	287 ①	288 ②	289 해설 참조
290 ⑤	291 ①	292 ④	293 ㉠ 전문성, ㉡ 독점성, ㉢ 자율성	294 ③
295 ④	296 노블레스 오블리주	297 ②	298 ①	
299 ①	300 ④	301 ②		

265 칼뱅은 직업이 신이 주신 소명이라고 보고, 정약용은 공직자의 윤리로 절용(節用)과 청렴(淸廉)을 강조한다. 프리드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법을 지키며 합법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순자는 예(禮)를 바탕으로 하여 각자의 덕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할 것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③ 공자는 모든 분야에 능통한 사람만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을 강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분야에 능통해야 한다고 본다.

266 제시된 글에서는 직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에는 직업이 자아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진술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67 인간은 직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개인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여 성취감과 보람을 느낌으로써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④ 직업 생활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를 통해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품성을 계발하는 것은 직업의 의의라고 할 수 없다.

268 제시된 글에서는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옥수수 시리즈의 개발에 성공한 김순권의 삶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업적 성공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과 사회적 차원에서 이웃, 국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제시된 글에서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소명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직업적 성공을 통해 세계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ㄹ, 제시된 글에서는 직업적 성공으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269 제시된 글은 공자가 강조한 정명(正名) 사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정명 사상은 각자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270 **모범 답안**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271 (가)는 노자, (나)는 맹자의 입장이다. 노자는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강조한다. 맹자는 생업 문제인 항산(恒産)을 해결하여 백성들이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恒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왕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가), (나)의 입장에만 모두 표시한 학생은 병이다.

바로알기 | 두 번째 입장: 노자는 인(仁)이 자연적 본성을 훼손하는 인위적인 규범이라고 보고 이를 비판한다. 네 번째 입장: 맹자는 백성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주가 백성을 위해 통치하는 민본주의를 강조한다.

272 제시된 글의 사상은 칼뱅이다. 칼뱅은 노동이 신의 뜻을 세속에서 실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고, 신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소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현실에서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나. 칼뱅은 세속적 이익이 신이 주신 소명인 직업 생활에 충실히 따른 결과이므로 죄악이 아니라고 본다. 다. 칼뱅은 직업적 성공이 신이 주신 소명에 따라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이러한 직업적 성공이 신에 의한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73 제시된 글의 사상은 칼뱅이다. 칼뱅은 직업이 신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소명(召命)이라고 주장하며, 근면 성실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직업적인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칼뱅의 직업관에 강조하는 개념은 소명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⑤ 선공후사관 먼저 공적인 것을 중시하고 그 이후에 사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274 칼뱅은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한다. 또한 직업적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서 인식하고, 직업은 신이 내린 소명이자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뱅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칼뱅은 직업을 신이 주신 소명으로 인식하므로 세속의 직업에서도 신의 뜻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② 칼뱅은 현실의 직업이 신이 주신 소명을 실현하는 기회가 된다고 본다. ③은 중세 기독교의 직업관에 해당한다. ⑤ 칼뱅은 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무조건 많은 부를 축적함으로써 신의 은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275 제시된 글의 사상은 베버이다. 베버는 청교도가 노동을 신의 명령으로 간주하여 직업 생활에 충실했다고 본다. 또한 칼뱅의 직업관에서 나타난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과 금욕적 태도가 자본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나. 베버는 청교도가 가진 소명 의식이 직업적 성공을 가져왔고, 이러한 직업적 성공이 자본 축적의 원천이 되었다고 본다. 리. 청교도는 직업적 성공을 구원의 수단이나 구원받을 증표로 간주한다.

276 그림의 강연자는 베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베버는 청교도가 노동을 신의 소명이라고 인식하고, 소명에 따라 노동함으로써 직업이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었다고 본다. 또한 직업적 성공은 신의 구원이라는 선택을 받은 자들 중 하나라는 징표를 의미하고, 부의 축적은 착실함·근면함과 결합되어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② 베버는 청교도의 노동이 자본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따라서 부자의 노동 역시 소명 의식에 따라 금욕적 태도로 이루어졌다면, 자본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볼 것이다.

277 갑은 중세 기독교 사상가이고, 을은 칼뱅이다. 갑은 육체노동이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벌이라고 본다. 반면 을은 모든 형태의 직업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소명이라고 보고, 직업 노동이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갑, 을은 모두 육체노동이 신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가. 갑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한 결과 육체노동이라는 신의 벌을 받게 되었다고 본다. 다. 은 중세 기독교의 직업관에 해당한다.

278 갑은 칼뱅, 을은 중세 기독교 사상가이다. 갑은 직업을 신이 주신 소명으로 인식하고,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현실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근면 성실한 직업 생활을 구원의 징표로 인식하고, 일로 창출한 이익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강조한다. 을은 노동이 인간의 자유 의지 남용에 대해 신이 내린 벌이라고 보고, 노동보다 명상과 신을 향한 기도를 더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육체노동이 신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다. 을은 세속적인 일이 인간의 자유 의지 남용에 대해 신이 내린 징벌로서 기능한다고 본다.

279 (가)는 칼뱅, (나)는 순자의 직업관에 해당한다. 칼뱅은 직업을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소명으로 이해한다. 순자는 예(禮)를 바탕으로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자의 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칼뱅과 순자는 모두 사회적 분업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바로알기 | ① 칼뱅은 직업을 통한 부의 축적을 신의 소명에 충실히 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280 제시된 글의 사상은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으나,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화된 노동은 노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노동자에게 인간 소외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만 노동자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노동자는 노동 착취를 당해 부를 축적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② 마르크스는 노동 소외 현상이 사적 소유와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③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한다. ⑤ 마르크스는 분업과 생산 효율성에 대한 집착이 인간 소외를 유발한다고 본다.

개념 보충

서양의 직업관

플라톤	국가의 세 계급이 자신의 고유한 덕을 발휘하여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중세 기독교	노동은 원죄에 대한 벌로서 신이 부과한 것임
칼뱅	직업은 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임
마르크스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화된 노동이 인간 소외를 유발함

281 제시된 글의 사상은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화된 노동이 인간 소외를 발생시키고 노동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주체성을 잃고 노동 소외를 경험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①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협력이 아니라 사적 수단을 철폐하고 계급이 소멸되어야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이다. ④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이 노동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원인이라고 보고 분업에 반대한다. ⑤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노동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사적 소유와 계급이 지속되는 한 노동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282 갑은 공자, 을은 플라톤이다. 공자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을 주장한다. 한편 플라톤은 국가의 세 계급이 자신의 역할에 맞는 탁월함을 발휘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보고, 자신의 탁월함에 부합하는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ㄹ. 공자와 플라톤은 모두 자기 직분에 걸맞은 덕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지, 모든 직분에서 덕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283 갑은 플라톤, 을은 순자이다. 플라톤은 직업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여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고 덕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순자는 각자의 덕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본다. 한편 플라톤과 순자는 모두 사회적 역할이 각자의 덕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플라톤은 각자의 탁월성에 따라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의 역할이 구분된다고 보고, 각자가 자신의 일에 충실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ㄴ. 플라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계층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덕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정해진다고 본다.

284

갑: 모든 직업은 소명(召命)이며 노동은 신과 이웃에 봉사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 유익을 주는 것보다 더 신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없다.

을: 대인이 할 일과 소인이 할 일이 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모두가 지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는 마음, 어떤 이는 몸을 쓰는 것이다.

병: 매뉴팩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장 안의 분업은 독립적이었던 노동자를 부분 노동자로 전락시켜 기형적 불구자로 만들며, 노동자를 자본의 지휘와 규율에 복종시킨다.

→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해 그들의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을 하게 하는 공장제 수공업

갑은 칼뱅, 을은 맹자, 병은 마르크스이다. 칼뱅은 직업이 신이 주신 소명이라고 보고, 직업적 성공이 신에 의한 구원의 증표가 된다고 본다. 맹자는 대인과 소인의 일을 구분하며 각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직분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 노동이 인간 소외를 유발했다고 보고,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여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대립을 제거하고 노동의 본질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② 칼뱅은 직업을 신이 주신 소명으로 인식하므로 구성원 간의 역할이 자유롭게 교환될 수 없다고 본다.

285 마르크스는 사회에서 경제적 요인인 하부 구조가 종교, 도덕, 문화 등의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적 요인이 도덕적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알기 | 마르크스는 ① 직업의 궁극적 목적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며, ② 필연적인 역사 발전의 단계에 따라 사유 재산, 계급, 국가가 소멸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본다. 또한 ③ 사적 생산 수단의 철폐를 주장하며, ⑤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 및 사적 소유가 사라져야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286 제시된 글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인 노동 3권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노동 3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세 가지의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 ①에 들어갈 권리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단체 행동권이다.

287 ①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이윤 추구이다. 제시된 글에서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윤 추구라고 보고, 이윤 추구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88 제시된 글의 '나'는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 이윤 극대화라고 보고, 이를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반면 '어떤 학자'는 기업이 이윤 추구 외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 추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 어떤 학자에게 공동선의 추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어떤 학자는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공익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③ 나는 주주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고 본다. ④ 어떤 학자는 기업의 공익 활동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⑤ 나와 어떤 학자 모두 합법적인 경영으로 합리적인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289 **모범 답안** 프리드먼은 합법적인 이윤 추구 활동이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본다. 반면 애로우는 기업이 이윤 추구 활동과 함께 자선 사업, 환경 보호 등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290 갑은 애로우, 을은 프리드먼이다. 애로우는 기업의 일차적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다고 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강조한다. 프리드먼은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의 틀에 어긋나며, 기업은 오직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애로우와 프리드먼은 모두 기업가가 건전한 이윤 추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애로우 역시 기업 경영의 일차적 목적은 이윤 추구라고 본다. ② 애로우는 이윤 추구하고 함께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주주의 권익은 공존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③ 프리드먼은 이윤 극대화가 기업이 가져야 하는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본다. ④ 프리드먼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291 갑은 프리드먼, 을은 애로우이다. 프리드먼은 기업이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이익 극대화 활동에만 매진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애로우는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이윤 추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윤 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프리드먼의 입장에 비해 애로우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기업의 책임을 이윤 추구에 한정시키는 정도'는 낮고, 'Y: 기업의 공익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정도'와 'Z: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는 높으므로 ①에 해당한다.

개념 보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극적 책임	기업은 본래 목적인 이윤 창출에만 힘써야 함 →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함
적극적 책임	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이윤 창출을 넘어 자선 사업, 환경 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함

← 프리드먼 → 기업의 목적

갑: 자유 경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속임수나 기만행위 없이 자원을 활용하고 이윤 추구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강조

을: 기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선

← 애로우

사업, 환경 보호 활동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 이럴 때 기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도 증진될 것이다.

(가)의 갑은 프리드먼, 을은 애로우이다. 프리드먼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애로우는 기업이 합법적인 이윤 추구를 넘어 자선 사업, 환경 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프리드먼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는 기업의 소극적 책임을 인정한다. ② 프리드먼은 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본다. ③ 프리드먼과 애로우 모두 기업 설립의 일차적 목적은 이윤 추구라고 본다. ⑤ 애로우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293 [모범 답안] ㉠ 전문성, ㉡ 독점성, ㉢ 자율성

294 제시된 대화에서 갑, 을은 전문직 윤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문직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전문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회적으로 승인된 사람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독점성],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자율성] 직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문직은 사회에 도덕적인 영향을 끼치고,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 의식이 요구된다.

바로알기 | ㄱ. 전문직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ㄴ. 공익을 추구하고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295 제시된 글에서는 공적인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공직자들의 사례를 보여 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는 업무상 얻은 정보를 사익 추구를 위해 쓰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96 [모범 답안] 노블레스 오블리주

297 제시된 글의 ‘나’는 공직자가 일반 국민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공직도 하나의 직업에 불과하므로 공직자에게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공직자의 행동이 미칠 사회적 영향력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어떤 사람은 일반 직업과 공직의 공통점을 강조한다. ③ 어떤 사람은 공직자에게 높은 윤리 의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⑤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다.

298 제시된 사상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로서 절용과 청렴을 강조하고, 공직자가 덕을 쌓고 근검절약하는 청렴한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직자가 학문과 인격의 수양을 통해 올바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ㄴ. 정약용은 공직자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ㄷ. 정약용은 공사를 구분하여 일을 처리하고 공익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299 제시된 글에 따르면 공직자는 백성을 편안하고 이롭게 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하며,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 통치해 나가야 한다.

바로알기 | ㄴ, ㄷ. 백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치나 공정한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정치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민본주의를 넘어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300 제시된 글의 사상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면 부정부패하게 될 수 있으므로 덕을 쌓고 근검절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뇌물이나 선물로 인해 청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301 제시된 글의 사상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공직자가 검소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곤궁한 사람을 먼저 돕는 애민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ㄴ. 정약용은 공직자가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직분을 배분해야 한다고 본다. ㄷ. 정약용은 공직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사로운 청탁의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개념 보충

정약용의 공직자 윤리

청렴의 강조	청렴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愛民)과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봉공(奉公)을 위해 필요한 덕목임
검소함의 강조	공직자는 엄격하게 자기 절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함
절용의 강조	마땅히 써야 할 부분에 쓰고, 쓸데없는 비용이나 긴요하지 않은 데 쓸 것을 절제해야 함

8 사회 정의와 윤리

개념 확인 문제

79쪽

302 ㉠ 이타심 ㉡ 정의

303 (1) ㄴ (2) ㄱ

304 (1) 보상의 논리 (2) 업적주의의 논리

305 (1) × (2) ×

난이도별 필수 기출

80~89쪽

306 ①	307 ②	308 ③	309 ③	310 ①	311 ④
312 해설 참조		313 ③	314 ①	315 ⑤	316 ⑤
317 ⑤	318 ④	319 ④	320 ⑤	321 ⑤	322 ④
323 해설 참조		324 ①	325 ④	326 해설 참조	
327 ⑤	328 ④	329 ②	330 ③	331 ①	332 ⑤
333 해설 참조		334 해설 참조		335 ④	336 ④
337 ⑤	338 해설 참조	339 ①	340 ③	341 ⑤	
342 ④	343 ③	344 ①	345 ③	346 ①	347 ④
348 ②	349 ②	350 ②	351 ②	352 ⑤	353 ②

306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성이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하며, 오히려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개인의 양심적 통찰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사회의 요구와 개인의 양심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일어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함께 외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사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적 행위가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없고, 오히려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307 제시된 글의 사상은 니부어이다. 니부어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쉽다고 본다. 또한 그는 사회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과 같은 사회적 강제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 니부어는 개인의 선의지가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본다. ㄷ. 니부어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 회복과 함께 사회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308 그림의 강연자는 니부어이다. 니부어는 국가나 집단의 이기심이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사회적 역제를 통해 국가나 집단의 이기적 충동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 니부어는 개인이 소속된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개인의 내면적 억제력은 줄어든다고 본다. ㄷ.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함양이 사회 정의 실현에 있어서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고 본다.

309 제시된 글의 사상은 니부어이다. 니부어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개인의 선의지 함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허용하지 않을 외적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서는 비도덕적으로 변하기 쉬우며, 집단

들 간의 관계는 합리적 판단보다 집단이 지닌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첫 번째 입장: 니부어는 집단 내 개인들 간의 갈등은 도덕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네 번째 입장: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이 사회 정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강제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310 제시된 글에 나타난 분배적 정의의 기준은 업적이다. 업적은 객관적인 평가와 측정이 쉽고, 동기 부여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에 대한 양과 질의 평가가 어렵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바로알기 | ③ 업적을 기준으로 분배하면 업적이 낮은 사람의 필요는 충족시키기 어렵다. ④ 업적은 성과를 기준으로 기회와 혜택을 분배한다.

311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하고, 특수적 정의를 다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구분한다. 일반적 정의는 법을 준수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분배적 정의는 각자가 가진 가치에 따라 각자의 몫을 공정하게 주는 것이다. 또한 교정적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만큼 보상하고 이익을 준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다.

312 **모범 답안**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하고, 특수적 정의를 다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구분한다. 일반적 정의는 시민들이 법을 따르는 것이고,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에 따라 각 사람이 가진 가치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그만큼 보상하고, 이익을 준 경우 그만큼 받는 것이다.

313 제시된 글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고, 특수적 정의를 다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구분한다. 이때 일반적 정의는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람은 공정하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바로알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등한 분배가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는 몫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명예와 같이 비물질적인 재화도 분배의 대상이 된다. ④는 마르크스 등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가 기하학적 비례를 따르는 동등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314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하고, 특수적 정의를 다시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로 구분한다. 이때 일반적 정의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에 따라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고,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만큼 보상하고, 이익을 준 만큼 보상받는 것이다.

315 제시된 글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가 권력, 명예, 재화와 관련된 것으로 기하학적 비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은 일반적 정의, ②는 교정적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316 제시된 글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하고, 특수적 정의를 다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구분한다. 일반적 정의는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며,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와 명예와 같은 재화는 각 사람이 가진 가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고, 옳은 것을 원하는 성품을 지닌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본다.

317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를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각자가 가진 가치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따라서 갑은 10일 동안 6시간씩 물고기를 잡았고, 을은 10일 동안 4시간씩 물고기를 잡았으므로 갑에게는 60, 을에게는 40의 비율로 물고기를 나누는 것이 정의롭다.

318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국가를 이루는 세 계층이 각자의 덕을 발휘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로 구분되는 모든 계층에게 절제의 덕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데아계가 현상계의 근원으로 더 우월하다고 인식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가 가진 가치에 따라 분배함으로써 분배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 정의라고 보고,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가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319 ㉠에 들어갈 용어는 절차적 정의이다. 절차적 정의는 분배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는 것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당한 몫을 결정하는 것이다.

320 밑줄 친 '이것'은 정의이다. 롤스는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더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 제도가 갖춰야 할 제1덕목은 정의라고 본다.

321 제시된 글에서는 분배에 있어 절차의 공정성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서술하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생한 결과는 정의롭다는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322 롤스는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이 제거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 적용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모든 사람에게 직책과 지위의 기회가 개방되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

바로알기 | ④ 롤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라도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공리주의의 주장을 비판한다.

개념 보충

롤스의 정의의 원칙	
제1원칙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제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두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어야 한다(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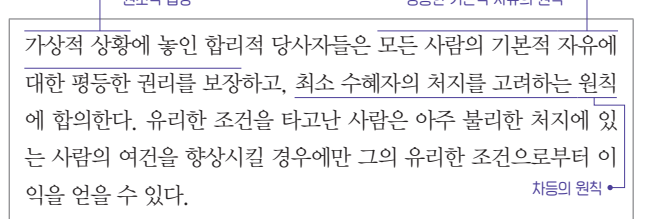
323 **모범 답안** (1)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공정한 기회균등

324 밑줄 친 '이 입장'은 롤스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가정한 가상적 상황인 원초적 입장이다. 원초적 입장은 자신의 직업, 성별, 국가 등의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한 상황이다.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은 경제학, 심리학 등의 일반적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지만, 타인에게는 상호 무관심하여 질투나 시기심을 느끼지 않는다.

바로알기 | ㄴ.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은 각자의 사회적 지위, 소질과 능력, 지능, 체력, 심리적 성향, 직업, 성별, 국가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 ㄷ. 원초적 입장을 통해 개인들은 자신들이 최소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우려하여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325



제시된 글의 사상은 롤스이다. 롤스는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면 그 분배의 결과도 공정하다고 보는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며,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로 나타난 불평등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롤스는 가상적 상황인 원초적 입장에서 인간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질투나 동정심을 느끼지 않으며 무관심하다고 본다. ② 롤스는 결과의 공정성이 절차의 공정성에 의해 보장된다고 본다. ③ 롤스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서 제시했듯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최악의 결과를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원칙에 합의한다고 본다.

326 **모범 답안** (1) ㉠ 취득, ㉡ 이전

(2) 재화를 취득하고 양도받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327 제시된 글의 사상은 노직이다. 노직은 개인에게는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절대적 권리가 있다고 보고,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가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고 보고,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전에서의 정의에 어긋남을 강조한다. 나아가 최초 취득이 정당한 재화라고 하더라도 이전의 과정에 부정의가 발견되었다면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 노직은 재화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이외에도 교정의 원리에 의해 이전될 수 있다고 본다.

328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한 원초적 입장을 토대로 정의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노직은 개인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보장하는 분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롤스와 노직은 모두 부정의한 분배가 이루어지면 국가가 부정의를 교정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더라도 정의의 원칙에 따랐다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329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노직은 롤스가 주장한 차등의 원칙과

같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분배를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라고 비판한다. 롤스는 모든 개인에게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노직은 양도를 통해 취득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두 사상이 모두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소유권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②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국가 개입을 통한 재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

330 갑은 노직, 을은 니부어이다. 노직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등의 목적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재화를 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니부어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이성적이지만 집단에 속한 인간은 집단의 힘에 의해 이기적 성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외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노직은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노직은 재분배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④ 니부어는 소득 격차 심화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는 합리적·도덕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제도나 정책 등 사회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⑤는 니부어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331 갑은 마르크스, 을은 왈처이다.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할 것을 주장하며, 실질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를라고 본다. 왈처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가장 바람직한 분배는 국가가 소멸된 상태에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왈처는 각 공동체의 특수성에 맞는 분배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나 왈처는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를 때 복합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정의의 다양한 영역을 긍정한다. 나, 마르크스와 왈처는 복지 국가에서 분배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332 (가)의 갑은 노직, 을은 롤스, 병은 벤담이다.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고,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우연성을 배제한 원초적 입장에서 세운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전제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벤담은 국가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시키는 분배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사상은 모두 현실에서 자연적 우연성을 활용하여 재화를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 특히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 상황에서는 자연적 우연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실에서는 자연적 우연성을 활용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재화를 늘리는 상황에 찬성한다.

바로알기 | 나 롤스는 정의의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한다고 보고, 개인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가치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333 **모범 답안**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편성되는 것이다.

334 **모범 답안** 한 영역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통해 다른 영역의 재화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35 갑은 롤스, 을은 왈처, 병은 노직이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지위, 소질, 능력 등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경제학·심리학 등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 상황에서 무지의 배일을 쓴 이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고 본다. 왈처는 단일한 기준에 따른 분배에 반대하고, 공동체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사회의 각 영역마다 다양한 정의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하며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 보호 등의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④ 노직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재분배에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36 제시된 글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에 대한 우대 정책 사례를 서술하고 있다. 우대 정책은 부당한 차별을 겪어 온 사회적 약자에게 일정한 몫을 보장하는 것으로, 재분배의 차원에서 과거의 불평등을 보상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대 정책은 분배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이며, 우대 정책이 오히려 또 다른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바로알기 | ④ 우대 정책은 특정 집단에 대해 가해진 부당한 차별이나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만을 기준으로 분배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다.

337 A는 우대 정책이다. 우대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여 과거에 이루어진 부당한 차별이나 불평등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우대 정책은 사회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대 정책은 역차별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과거의 차별에 대해 책임이 없는 현세대에게 부당한 보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바로알기 | ㉠ 우대 정책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분배에 어긋나 업적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338 **모범 답안** 사회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연적·사회적인 이유로 발생한 불평등을 시정하여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339 제시된 글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종합 부동산세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②, ④는 종합 부동산세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이다.

340 종합 부동산세 제도는 일정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일종의 부유세이다. 이러한 부유세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부유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부 격차를 완화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나, 나는 부유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41 제시된 글의 '나'는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어떤 사람'은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한다. 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범죄자의 생명권도 보장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342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형벌이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343 형벌에 대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형벌이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형벌의 목적이 응보가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형벌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ㄱ, ㄴ은 칸트의 입장이다.

344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범죄에 대한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형벌은 범죄 의지를 억제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② 벤담은 형벌 그 자체는 악이지만 형벌을 통해 공리를 증진할 수 있으므로 필요악이라고 본다. ③ 벤담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본다. ④는 칸트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 벤담은 범죄자에게 있어 형벌로 인한 손실이 위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더 커야 형벌이 범죄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345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부과함

→ 칸트

갑: 처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보호해 준다.

형벌은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

→ 벤담

을: 처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처벌은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가할 수밖에 없다.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처벌로 인한 고통이 더 커야 범죄 억제력이 있다고 봄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칸트는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 있다고 보고, 응보주의에 바탕을 둔 형벌만이 인간을 수단 아닌 목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벤담은 형벌의 목적이 범죄 예방과 교화를 통한 사회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칸트의 입장에서는 벤담에게 형벌의 질과 양이 공리의 원리가 아닌 동해 보복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범죄자의 인격을 공공선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ㄱ은 벤담의 입장이다. 벤담은 형벌 자체는 고통을 주는 악이지만,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필요악이라고 본다. ㄴ, 칸트는 사형이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는 정당한 형벌이라고 주장한다.

346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동등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고, 사형 제도에 찬성한다. 벤담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고, 유용성을 고려하여 사형 제도의 존폐를 논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칸트는 형벌이 범죄 예방이나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범죄자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벤담은 형벌이 범죄 해악 방지를 위한 본보기가 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 ㄴ은 벤담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47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이다. 칸트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은 정당하며, 사형이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형벌이라고 주장한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하는 형벌이라고 주장한다.

348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이다. 칸트는 응보주의에 바탕을 둔 사형이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는 형벌이라고 보고, 베카리아는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인 형벌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ㄱ, 칸트는 형벌이 공익과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오직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근거로 응보의 원리에 따라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ㄴ,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의 원리에 따라 효용성의 측면에서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인 형벌이라고 본다.

349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일순간에 끝나는 사형보다는 범죄자가 오랫동안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사형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베카리아는 한순간의 강력한 인상을 주는 사형과 같은 형벌보다 오랫동안 고통의 본보기가 되어 지속적인 예방 효과를 주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ㄴ은 루소의 입장이다. 이와 비교하여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으로도 생명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사회 계약을 이유로 사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개념 보충

사형 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

칸트	응보주의 관점에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다고 봄
베카리아	-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효과적이라고 봄 - 사회 계약설의 관점에서 생명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형은 부당하다고 봄
루소	사회 계약설의 관점에서 계약자인 다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형은 정당하다고 봄

350 (가)의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이다. 칸트는 사형이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는 형벌이며,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살인범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즉, 칸트는 사형이 살인범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형벌이라 보며 사형에 찬성한다. 베카리아는 사형보다는 살인범이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인 형벌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은 칸트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칸트는 형벌이 범죄자의 교화나 범죄 예방과 같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③은 칸트는 부정, 베카리아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효과적인 형벌이라 주장하지만,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⑤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효과적인 형벌이라고 본다.

351 갑은 베카리아, 을은 루소이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개인의 생명권은 양도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회 계약을 이유로 한 사형 제도에 반대한다. 루소는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명과 안

전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에 참여한 시민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므로,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형 제도에 찬성한다. 따라서 베카리아의 입장에서는 루소에게 개인은 자신의 생명권을 사회에 양도할 수 없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본다. ③은 칸트의 입장이다. ④ 베카리아는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로 사형에 반대한다. ⑤ 베카리아는 모든 형벌이 정부에 의한 공적 형벌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352 같은 칸트, 음은 루소이다. 칸트는 처벌의 본질이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에 있으며, 형벌의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동등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루소는 자발적 상호 계약인 사회 계약설을 근거로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희생해야 함을 강조하며 사형 제도에 찬성한다. 칸트와 루소는 모두 처벌이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처벌의 목적이 흉악 범죄 예방이 아닌 응보 자체에 있다고 본다. ②는 공리주의자인 벤담 등의 입장이다. ③ 루소는 처벌이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본다. ④ 루소는 살인자가 사회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으므로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353 (가)의 같은 칸트, 음은 베카리아, 병은 루소이다. 칸트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처벌이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하는 효용 가치가 큰 형벌이라고 본다. 루소는 사회 계약설의 관점에서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형 제도가 정당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형벌이 국가의 존속과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③은 칸트의 입장에 해당하므로 A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④ 루소는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범은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여 사형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국가와 시민의 윤리

개념 확인 문제

90쪽

354 (1) × (2) ○

355 (1) L (2) ㄱ

난이도별 필수 기출

91~95쪽

356 ③	357 ②	358 ③	359 ⑤	360 ④	361 ④
362 ④	363 ③	364 ⑤	365 ②	366 ⑤	367 ②
368 해설 참조	369 ③	370 ④	371 ③	372 ④	
373 소로, 개인의 양심		374 ⑤	375 ③	376 ②	
377 ③					

356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로크이다. 로크는 개인들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본다.

357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완전하고 자족적인 공동체이며, 인간은 최상의 공동체인 국가 안에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은 사회 계약론의 관점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라고 보지만, 국가는 상호 동기가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파악한다. ④는 유교의 국가관에 해당한다. ⑤는 흄스의 국가관에 해당한다.

358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흄스이다. 흄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고,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자신의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연권을 양도하는 사회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한 것이라고 본다. 이때 개개인의 생명 보존을 위해 수립된 국가 권력은 절대적이며 분할될 수 없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흄스는 인간이 이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본다. L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359 제시된 글은 유교 사상이다. 유교에서는 군주의 통치권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같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백성의 의무라고 본다. 유교의 이상적 국가인 대동 사회에서는 분배의 형평성을 중시하며 빈곤 해결을 국가의 주요한 역할로 인식한다. 이러한 유교의 국가관을 현대 사회에 적용한다면 빈부 격차 해소, 복지 정책 확대, 공정 거래 확립, 노사 협력 등을 실천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⑤ 자유 경쟁을 통한 승자 독식 구조의 형성은 제시된 유교의 입장에서 추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360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음은 흄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존재로, 정치 공동체 속에서 최선의 삶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때 국가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흄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는 전쟁 상태라고 보고,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수립한 것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L.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존재라고 보지만, 인간들의 상호 동기가 아닌 본성에 따라 국가가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61 (가)의 갑은 로크,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가 비교적 평화롭지만 분쟁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의 생명과 자유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란 개인이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자족적인 공동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① 로크는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인 자연 상태에서도 모든 개인은 자연권적 기본권을 지닌다고 본다. ②는 사회 계약론자인 홉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③은 정치적 의무의 도덕적 근거에 대한 관점 중 동의론에 해당하는 진술로 로크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⑤는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 해당한다.

362 (가)의 갑은 목자, 을은 맹자이다. 목자는 타국과 자국, 남의 가족과 나의 가족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겸애(兼愛)를 통해 인류애를 실천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여 국가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맹자는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군주가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백성들이 경제적인 안정(恒産)을 토대로 도덕적인 삶(恒心)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은 후 백성이 편안하도록 다스리는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자세를 지향한다.

바로알기 | ㄴ. 통치의 궁극적 목표를 엄격한 법치의 실현에 두는 것은 한비자와 같은 법가 사상가이다.

363 갑은 맹자, 을은 로크이다. 맹자는 백성에게 향산이 없으면 도덕적인 마음인 향심을 갖기 어려우므로, 군주가 백성들을 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의 생계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심을 잃은 통치자는 교체될 수 있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한다. 로크는 개인들이 자연 상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자 국가를 세우는 데 동의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입법자들이 인민의 자연권을 침해하고 인민을 노예로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 계약에 따라 더 이상 정치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③ 국가가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은 사회 계약론자인 로크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364 갑은 맹자, 을은 링컨이다. 맹자는 군주가 인의(仁義)를 해치고 민심을 얻지 못하면 군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백성의 뜻에 따라 교체될 수 있다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주장한다. 링컨은 통치자가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피치자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ㄱ. 맹자는 통치자가 부덕하다면 백성의 뜻에 따라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본다.

365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개인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를 수립한 것이므로,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로크는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해결하기 힘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수립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국가는 공정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으로서 개인들로부터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은 것으로,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②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로크이다. 반면 홉스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절대 군주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366 민주 사회에서 선거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민주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데, 시민들은 국가에 시민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바로알기 | ㄱ.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367 제시된 글에서는 공공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68 **모범 답안**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합법적인 시도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

369 ㉠은 시민 불복종이다.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저항하는 행위로, 공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또한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물에 의해 지지를 받기도 하며,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공개적으로 위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시민 불복종의 예로는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마틴 루터 킹의 흑인 민권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바로알기 | ③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을 개정하거나 변혁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위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370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지 않은 사회, 즉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때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되는 정의감을 기준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다수의 정의감은 개인의 양심과 양립할 수 있다. 또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대해 항거하는 것으로, 시민 불복종 참여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④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부정의한 모든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감에 위배되는 심각한 정도로 부정의한 일부 법이나 정책이 불복종의 대상이라고 본다. 이때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71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매우 부정의한 사회 구조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부정의한 모든 법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만을 포함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시민 불복종은 심각한 부정의를 나타내는 일부 법이나 정책의 변화를 위한 것으로, 정치 체제나 법체계 전체에 항거하는 것은 아니다. ㄴ. 시민 불복종은 도덕적으로 옳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372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부정의한 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위법 행위라고 본다.

바로알기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① 정의의 원칙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② 다수의 정의감에 따르는 행위라고 본다. 또한 ③ 시민 불복종이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며, ⑤ 시민 불복종이 정치 체제나 법체계 전체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한 일부의 법을 변화시키려는 비폭력적인 행위라고 본다.

373 **모범 답안** 소로, 개인의 양심

378 ② 379 ① 380 ③ 381 ① 382 ③ 383 ③
384 ⑤ 385 ③ 386 ④ 387 ③ 388 ④

374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이익을 낳는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싱어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부정의를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민 불복종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큰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롤스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만을 시민 불복종의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싱어와 롤스 모두 부정의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는 싱어와 롤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④는 싱어와 롤스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개념 보충

시민 불복종에 대한 관점들	
소로	법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중요함 → 개인의 양심에 따라 부정의한 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복종해야 함
롤스	•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을 기준으로 불복종해야 함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해 불복종해야 함
싱어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함

375 갑은 소로, 을은 롤스이다. 소로는 시민 불복종이 개인의 양심에 기준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로와 롤스는 모두 시민 불복종이 정의 실현을 위한 위법 행위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ㄱ. 소로는 개인의 양심에 위반되는 법에 즉시 불복종해야 한다고 본다. ㄴ은 소로의 입장에 해당한다.

376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와 싱어는 모두 시민 불복종이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보고, 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한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 롤스와 싱어 모두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부정의한 법의 교정이라고 본다. ㄷ은 롤스와 싱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77 (가)의 갑은 소로, 을은 롤스이다. 소로는 법에 대한 존중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개인의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소로는 개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은 부정의한 모든 법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소로와 롤스 모두 시민 불복종이 불의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ㄴ. 소로와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모든 법이 아니라 부정의한 법을 어김으로써 불의에 저항하는 행위라고 본다.

378 갑은 플라톤, 을은 정약용이다.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인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 타고난 고유한 덕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본다. 정약용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덕목으로 절용과 침령을 강조하며 공직자가 덕을 쌓고 근검절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플라톤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 계급이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약용은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절약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사상가 모두 공직자들의 검소한 삶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ㄴ. 플라톤은 통치자에게는 통치를, 방위자에게는 방위를, 생산자에게는 생산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각 계층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ㄷ. 정약용은 공직자가 개인의 자유나 권리,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79 갑은 맹자, 을은 칼뱅이다. 맹자는 직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이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된다고 보고, 통치자는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칼뱅은 직업을 신의 부르심인 소명이라고 주장하며, 직업 생활에 충실함으로써 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맹자와 칼뱅은 모두 직업이 생계유지 수단 이상의 가치를 지님을 인정한다. 나아가 맹자와 칼뱅 모두 사회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ㄷ은 맹자는 부정, 칼뱅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ㄴ은 맹자와 칼뱅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맹자는 대인이 할 일과 소인이 할 일이 구분된다고 보고, 칼뱅은 신이 주신 소명에 따라 해야 할 노동이 달라진다고 본다.

380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니부어이다. 니부어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인간도 집단에 속하면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니부어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의지 함양과 함께 외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② 니부어는 집단 간 이해관계가 설득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없고, 사회 불의가 합리적인 권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외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④ 니부어는 개인의 이타심과 애국심만으로는 국가 간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⑤ 니부어는 정치적 강제력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본다.

381 (가)의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천부적 재능 자체는 개인의 소유지만, 우연성에 의해 분배된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노직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는 역할만을 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고 본다. 한편 롤스와 노직은 공통적으로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다.

바로알기 | ㄴ. 무지의 베일은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가상적 상황인 원초적 입장에서 사용되는 장치로, 롤스의 입장에만 해당한다(A). ㄷ. 롤스와 노직은 모두 정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

하다고 본다(B). 다만 노직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재분배가 아니라 최초의 취득과 이전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의를 교정하는 등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본다.

382 (가)의 갑은 벤담, 을은 롤스이다. 벤담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낳는 분배가 정의롭다고 보고, 롤스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분배가 정의롭다고 본다. 따라서 벤담은 상층, 중층, 하층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 가장 큰 (나)의 A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라고 볼 것이다. 반면 롤스는 상층, 중층, 하층 중 최소 수혜자인 하층의 이익이 가장 큰 (나)의 C가 B보다 정의롭다고 볼 것이다.

바로알기 | ① 벤담은 A가 공리의 원리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B보다 A를 정의롭다고 평가한다. ② 벤담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행복의 총량을 우선시한다. ④는 벤담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 벤담과 롤스 모두 계층 간의 평균 격차를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383 (가)의 갑은 노직, 을은 롤스, 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노직은 정당한 취득과 이전의 원칙에 따른 소유물에 대한 개인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분배적 정의라고 본다. 롤스는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도출한 정의의 원칙에 따랐다면 그 결과의 공정함이 보장된다고 보고, 이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가 지닌 가치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노직과 롤스는 모두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므로 두 사상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ㄴ. 롤스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수를 위해서라도 소수의 기본적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

384 (가)의 갑은 롤스, 을은 노직, 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롤스는 개인들의 유희리를 배제한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분배가 정의롭다고 본다. 노직은 정당한 취득과 이전의 원칙에 따른 소유물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가 가진 가치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라고 본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롤스와 노직의 입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 결과의 정의가 보장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연성으로 취득한 이득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②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인의 처지와 이익을 고려한다고 본다. ③ 노직은 도덕적 공과를 기준으로 삼는 분배 등을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라고 보고,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에 반대한다. ④ 롤스, 노직,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더라도 분배 결과가 불평등할 수 있다고 본다.

385 (가)의 갑은 루소, 을은 베카리아, 병은 칸트이다. 루소는 사회 계약설의 관점에서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시민에게 더 큰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본다. 칸트는 응보주의의 관점에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살인자에게 합당한 형벌은 사형뿐이라고 보고,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형벌이라고 본다. 베카리아는 형벌을 범죄자에 대한 교화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칸트는 형벌을 응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루소와 칸트는 부정, 베카리아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ㄴ. 베카리아는 사형이 종신 노역형에 비해 처벌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이 낮다고 본다.

386 표의 서양 사상은 칸트이다.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사형만이 살인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라고 보고, 사형은 살인범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인격을 존중하는 형벌이라고 본다. 또한 칸트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법률을 통해 공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형벌을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범죄자를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한다.

바로알기 | ㄴ. 칸트는 사형이 보복법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387 갑은 소로, 을은 롤스이다. 소로는 시민 불복종이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하여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라고 보고, 개인의 양심에 따라 부정의한 모든 법에 대해 불복종해야 한다고 본다. 롤스는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복종해야 하며,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롤스는 모든 법이 아니라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만을 시민 불복종의 대상으로 삼는다.

바로알기 | ㄱ. 소로와 롤스는 모두 시민 불복종이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라고 본다. ㄴ. 소로와 롤스는 모두 시민 불복종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위법 행위라고 본다.

388 (가)의 갑은 흄스, 을은 공자, 병은 한비자이다. 흄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보고, 이기적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본다. 공자는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군주가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면 국가가 편안해진다고 본다. 한비자는 이기적인 인간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상벌과 같은 강제력이 필요하며, 법치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흄스와 한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자에게 통치자가 피치자의 이기적 본성을 누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군주가 덕으로써 다스려 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② 공자는 형벌로 다스리는 법치가 아닌, 덕으로 다스리는 덕치를 강조한다. ③ 공자는 가족 공동체의 중요한 덕목인 효(孝)를 국가 윤리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⑤는 공자만이 할 수 있는 비판이다.

10 과학 기술과 윤리

개념 확인 문제

101쪽

389 (1) 과학 기술 혐오주의 (2) 과학 기술 지상주의 390 (1) - ㉠
(2) - ㉡ 391 (1) 외적 (2) 부정 392 (1) ○ (2) ○ (3) ×

난이도별 필수 기출

102~107쪽

393 ④ 394 ⑤ 395 ⑤ 396 ④ 397 ① 398 ②
399 ③ 400 ① 401 ④ 402 ② 403 ② 404 ①
405 ④ 406 ㉠ 책임, ㉡ 윤리적 공백 407 ④ 408 ①
409 ① 410 ④ 411 ① 412 ① 413 ⑤ 414 ⑤
415 ④ 416 ① 417 ② 418 ④

393 갑은 과학 기술 지상주의의 입장을, 을은 과학 기술 혐오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갑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가 무한한 부를 이룰 수 있고,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학 기술을 낙관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한다. 반면 을은 과학 기술이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악이라고 보고, 과학 기술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을은 모두 과학 기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결여되어 있으며, 과학 기술에 대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④ 과학 기술의 목적을 진리의 발견과 활용으로 보는 것은 갑의 입장에 해당한다. 을은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94 갑은 과학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며, 과학 기술자는 과학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반면 을은 과학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며,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과학 기술의 활용 결과에 대한 과학 기술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와 'Y: 과학 기술자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는 높고, 'Z: 과학 기술의 발견 및 활용의 과정에서 가치 판단의 배제를 강조하는 정도'는 낮으므로, ㉠에 해당한다.

395 갑은 과학자의 연구와 발명은 순수한 학문적 행위이며, 과학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본다. 반면 을은 과학자가 자기 연구 결과물의 사회적 영향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초래할 사회적 영향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은 갑, 을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갑은 과학자의 연구 윤리 준수를 긍정하고, 을은 과학자에게 연구 윤리 준수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윤리적 책임을 요구한다. ②는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은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는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96 제시된 글의 '나'는 과학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며, 과학 기술의 좋고 나쁨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과학 기술 자체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과학 기술은 가치 중립적임으로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97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야스퍼스이다. 야스퍼스는 기술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단지 가치 중립적인 수단일 뿐이며,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기술의 부정적 결과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② 야스퍼스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본다. ③ 야스퍼스에게 기술 그 자체는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④ 야스퍼스는 기술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며 가치 중립적이라고 본다. ⑤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활용에 대한 가치 판단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398 갑은 과학 기술자가 과학 기술의 연구와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을은 과학 기술자가 과학 기술의 연구와 활용의 전 과정을 윤리적 평가와 결부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병은 과학 기술이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는 과정은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만, 과학 기술의 활용 과정은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병은 과학 기술의 이론과 활용의 맥락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399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야스퍼스이다.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단지 수단에 불과하며, 인간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본다. 즉, 기술 그 자체를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으로 본다.

바로알기 | ①, ②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본다. ④ 야스퍼스는 기술의 활용 결과는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⑤ 기술 그 자체는 규범적 기준의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400 제시된 글은 과학 지식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은 윤리적 평가의 대상으로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알기 | ㉠ 제시된 글은 과학의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제시된 글은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연구 활동 과정에는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401 갑은 하이데거, 을은 야스퍼스이다. 하이데거는 기술이 본질적으로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규정하며 인간의 관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가치 중립적으로 본다면 인간은 기술에 종속될 것이라고 본다. 반면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기술의 활용 결과에 대해서만 윤리적 성찰이 가능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 하이데거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볼 때 인간은 기술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402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 그 자체와 과학 기술의 활용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야스퍼스는 과학 기술이 그 자체로는 수단일 뿐이며 과학 기술의 활용에 대한 윤리적 성찰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과학 기술은 그 자체로는 인간의 수단일 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야스퍼스가 긍정을, '과학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가치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ㄴ.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모두 과학 기술이 인간 사회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ㄹ.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모두 과학 기술이 인간 사회에 긍정적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과학 기술의 활용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403 값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긍정하는 하이젠베르크, 을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오펜하이머이다. 과학자는 연구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하이젠베르크의 입장에서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오펜하이머에게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오펜하이머는 과학 기술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도 과학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오펜하이머에게 할 수 없는 반론이다. ③, ④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하이젠베르크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없는 반론이다. ⑤ 과학 기술의 연구 단계에서부터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하이젠베르크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없는 반론이다.

404 값은 과학 기술자에게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내적 책임만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과학 기술자가 연구 윤리 준수와 같은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 활동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ㄷ. 을은 과학 기술자가 자신의 연구 활동이 인간의 존엄성 구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 성찰할 것을 요구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ㄹ. 값, 을 모두 과학 기술자가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념 보충

과학 기술자의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내적 책임	연구 윤리를 준수하며 연구 자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예) 위조, 변조, 표절 등 금지
외적 책임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405 요나스는 현대 사회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전통 윤리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덕 문제들이 생겨났다고 보고, 기술 권력을 지닌 현세대가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자연과 같은 인간 이외의 존제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 윤리를 제시하였다.

바로알기 | ④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활용에 대한 희망적인 미래나 기대보다는 과학 기술이 가져올 절망적인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포의 발견술을 주장하였다.

406 **모범 답안** ㉠ 책임, ㉡ 윤리적 공백

407 제시된 글에서 설명하는 윤리 사상은 요나스의 책임 윤리이다. 책임 윤리는 기술 권력을 가진 현세대가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확장된 범위의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책임 윤리에 따르면 인류의 존속은 무조건적인 명령으로서 현세대에게 주어지는 도덕적 책임이다.

바로알기 | ① 요나스는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② 요나스는 기술 권력을 지닌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제라고 본다. ③ 요나스는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은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라고 본다. ⑤ 요나스는 현세대가 인류의 존속을 위하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408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현대 과학 기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는 기존의 전통 윤리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면서, 새로운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책임 윤리에 따르면 기술 권력을 지닌 현세대는 미래 세대부터 자연까지 책임의 범위를 확장해야 하며, 현세대는 이미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예견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바로알기 | ② 요나스는 과학 기술이 가져올 희망적 미래보다 공포스러운 결과를 예측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요나스는 인간보다 생태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으로까지 책임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자연에 대한 고려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④ 새로운 윤리학으로서 책임 윤리는 도덕 문제에 대한 가치 중립적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⑤ 요나스는 이성을 지니지 않은 존제, 즉 자연이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책임의 주체는 인간이라고 주장하였다.

409 요나스는 현대 과학 기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도덕 문제들은 기존의 전통 윤리 규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기존의 전통 윤리와 새롭게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사이에 윤리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요나스는 책임 윤리를 주장하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능력이 있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ㄹ. 요나스는 현대 기술의 파급 효과는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주므로,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현세대는 미래 세대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410

• 현대 과학 기술은 자연과 미래 세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오늘날에는 기술적 응용이 과학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거대한 권력으로 작용하는 과학 기술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학은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공포의 발견술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현대 과학 기술의 파급력이 미래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고, 과학 기술 연구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선(희망)의 인식보다 악(공포)의 인식이 효과적임을 주장하는 공포의 발견술을 강조한다. 나아가 기술 권력을 쥔 현세대에게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ㄷ. 요나스는 과학 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11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현대 과학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도덕 문제에 대하여 현세대에게 미래 세대와 자연으로까지 확장된 범위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또한 기술 권력을 쥐고 있는 현세대에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요나스는 희망보다 공포에 대한 인식이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북돋을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요나스는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같이 일방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412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책임 윤리를 주장하면서, 현세대가 인류의 존속을 정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자연에 대해 강력한 파급력을 발휘하는 현대의 기술 권력을 지닌 인간의 책임 대상을 생태계 전체로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ㄷ. 요나스는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하여 일방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세대의 행위는 미래 세대에 영향을 주지만, 미래 세대의 행위는 현세대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ㄹ. 요나스는 현세대가 과거 행위에 대한 인과적 책임과 함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다.

413 요나스는 현세대의 인간에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위가 도출된다고 보면서, 도덕적 책임은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포함하는 정언 명령으로서 현세대에게 주어진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요나스는 현세대의 행위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② 요나스는 현세대에게만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③ 요나스는 인류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현대 과학 기술은 자연에게도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다. ④ 요나스는 현대 사회에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도덕적 문제들이 발생하며 이는 전통 윤리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414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현대 과학 기술의 파급력이 미래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인간은 인류의 존속을 위해 미래 세대와 자연으로까지 확장된 범위의 윤리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요나스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② 요나스는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해 일방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③ 요나스는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환경 문제 등은 전통 윤리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윤리로서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④ 요나스는 현대 기술이 자연에도 강력한 파급력을 발휘하므로, 인간의 책임 범위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415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현세대의 인간에게는 이미 발생한 결과에 대한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예측되는 결과에 대한 사전적 책임까지 주어진다고 보고, 현세대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과학 기술의 파급력이 강력해짐에 따라 현세대의 행위는 미래 세대의 존속과 자연에까지 영향을 주므로, 인간은 미래 세대의 존속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인간 외의 존재까지 확대된 범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ㄹ. 요나스는 자연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책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된 의무라고 보았다.

416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현대 사회의 기술 권력을 지닌 인간에게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때 인간의 책임은 현세대의 인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인간과 자연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세 번째 입장: 요나스는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고 보는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이 환경을 파괴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다. 네 번째 입장: 요나스는 책임 윤리를 제시하면서 현세대의 인간에게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도를 넘어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책임지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417 제시된 그래프는 근대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의 발전과 이성의 도덕적 숙고 사이에 간극이 발생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요나스는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도덕 문제들을 기존의 전통 윤리(이성의 도덕적 숙고)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윤리적 공백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개념은 '윤리적 공백'이다. 윤리적 공백이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윤리 문제를 전통 윤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바로알기 | ㄴ. 요나스가 제시한 윤리적 공백이란 기술의 발전을 기존의 윤리 사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다. ㄷ. 요나스는 윤리적 공백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책임 윤리를 제시하였다.

418 (가)는 현세대에게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나)는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요나스의 입장이다. (가)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호혜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나)는 과거 세대가 현세대에게 도움을 주었듯이 현세대 역시 미래 세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세대 간 연속성에 근거해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ㄷ. (나)의 입장에서는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즉,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호혜적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념 보충

요나스의 책임 윤리

새로운 윤리 주장	•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과학 기술의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함 → 새로운 윤리학은 최고 악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봄
책임 범위의 확대	• 인간은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함 •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된다고 봄 • 책임의 대상과 범위에 생태계 전체와 미래 세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

1 정보 사회와 윤리

개념 확인 문제

108쪽

419 (1) - ㉠ (2) - ㉡

420 (1) ○ (2) ○

난이도별 필수 기출

109~111쪽

421 ③ 422 ① 423 ④ 424 ⑤ 425 ① 426 ⑤
427 ① 428 ⑤ 429 ③ 430 ⑤ 431 미디어 리터러시
432 ⑤ 433 ④

421 값은 정보 공유론의 입장에서 정보와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올은 정보 사유론의 입장에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생산자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할 때, 창작의 욕구를 자극하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은 올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 값은 정보 공유론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올은 정보 생산 활동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창작의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22 제시된 신문 칼럼에서는 정보 사유론의 입장에서 문학, 예술, 학술과 관련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창작 동기를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고 본다. 따라서 신문 칼럼은 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저작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바로알기 | ②, ③, ④, ⑤는 정보 공유론의 입장에 해당한다.

423 (가)는 정보 공유론, (나)는 정보 사유론의 입장이다. 정보 공유론은 정보를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보고,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의 질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정보 사유론은 정보가 정보 창작자의 자산으로, 이에 대한 보호 조치와 보상이 이루어질 때 정보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정보 접근의 불평등 해소를 중시하는 정도'는 낮고, 'Y: 정보 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정도'는 높으며, 'Z: 정보가 갖는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하는 정도'는 낮으므로, ㉠에 해당한다.

개념 보충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 권리	
저작권 보호 (copyright)	- 정보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 -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 → 창작 의욕을 높여 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봄
정보 공유 권리 (copyleft)	- 정보 저작물은 개인의 자선인 동시에 인류 공동 자산이라고 보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 - 저작물을 모든 사람들의 공동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의 질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424 (가)의 값은 정보 사유론의 입장을, 올은 정보 공유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값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때,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높여 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올은 저작물을 공동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저작권 보호가 정보 독점 현상을 초래하여 다른 창작을 가로막는다고 본다. 값, 올은 공통적으로 질 높은 정보를 생산하여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은 정보 공유론을 주장하는 올만의 입장에 해당한다(C).

425 제시된 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남용되는 표현의 자유로 인해 타인의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오용되는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26 값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올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그 처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값과 올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② 값, 올 모두 알 권리와 정보 공유 권리에 대한 주장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값, 올은 모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④ 값, 올은 정보 격차 해소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느냐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개념 보충

알 권리와 잊힐 권리

알 권리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현실이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적·사회적 사실을 알기 위해 공공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잊힐 권리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 및 통제 권리

427 제시된 글에서는 키오스크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제시된 글에서는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소외 계층이 더 쉽게 정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28 값은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 사이의 괴리감이 존재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자아를 경험하는 것이 현실 공간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올은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자아를 경험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현실의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은 '사이버 공간의 자아는 현실에서의 자아 정체성 형성을 어렵게 하는가?'이다.

429 제시된 글에서는 사이버 폭력이 현실 세계의 폭력에 비해 확산성이 강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확대되며, 극심한 해를 낳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실 세계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이버 폭력은 정보의 복제와 유포가 쉬워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며, 한번 유포된 정보는 회수하기가 어려워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바로알기 | ㄱ. 제시된 글에서는 사이버 폭력이 신체적 측면의 폭력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ㄴ. 제시된 글에서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 세계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30 제시된 글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개인의 말과 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지지할 견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신의 언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431 **모범 답안** 미디어 리터러시

432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양하면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분석하고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하며, 정보 사회에서 매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을 키워야 한다.

바로알기 | ㄱ. 미디어 리터러시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아니라 매체를 올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시민적 역량으로서 강조된다.

433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 세계와 같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 요청되는데, 이러한 규범에는 대표적으로 인간 존중, 책임, 정의, 해악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바로알기 | ㉔ 사이버 윤리의 기본 원칙으로서 정의의 원칙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행동하면서 정보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며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자연과 윤리

개념 확인 문제

113쪽

434 (1) - ㉠ (2) - ㉢ (3) - ㉠

435 (1) 삶의 주제

(2)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436 (1) × (2) ○

437 (1) 대지 윤리 (2) 전일론적 (3) 환경 파시즘

난이도별 필수 기출

114~119쪽

438 ③	439 ②	440 해설 참조	441 ①	442 ②
443 ②	444 ②	445 ④	446 ⑤	447 해설 참조
448 해설 참조	449 ②	450 ③	451 ⑤	452 ②
453 ③	454 ④	455 ④	456 ④	457 ④
458 ⑤	459 ②	460 ⑤	461 ③	462 ①
463 ④	464 ④			

438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고, 아퀴나스는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은 동물을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보았다. 한편 베이컨은 도구적 자연관에 기초하여 자연에 대한 지식을 통해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고 보았고,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도덕적 주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③ 동물을 의식이 없는 단순한 물질이자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고 본 사상가는 요나스가 아니라 베이컨이다. 요나스는 오히려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자연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39 값은 인간 중심주의자인 칸트이다. 칸트는 동물에 대한 잔학한 행위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고 보고, 인간의 도덕성을 위해 동물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 상황>에서 A는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왜 비도덕적인지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해 칸트는 동물 학대가 인간이 지닌 도덕성에 해를 주는 것이므로 비도덕적이라고 조언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⑤ 칸트는 이성적 존재만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존재들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③ 칸트는 동물이 내재적 가치가 있거나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동물에 대한 존중은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간접적인 의무로서 실천되는 것이다. ④ 칸트는 동물의 존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440 **모범 답안**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동물이 영혼이 없는 단순한 기계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동물은 그 어떤 도덕적 지위도 가질 수 없고 인간은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441 (가)의 사상가는 베이컨이다. 베이컨은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이익이 될 때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지식의 습득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베이컨은 자연이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으며, 과학은 인간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베이컨은 과학의 발달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ㄷ. 베이컨은 과학의 목적이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442 (가)의 값은 데카르트, 율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데카르트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

한 지위를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이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나. 데카르트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인간을 위해 동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므로 B에 적절하지 않다. 다. 데카르트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므로 B에 적절하지 않다.

443 제시된 글의 사상은 레건이다. 레건은 이성 없더라도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들은 도덕적 권리를 지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삶의 주체인 동물들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내재적 가치를 지녔으며, 이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의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나. 레건은 삶의 주체의 조건으로 쾌고 감수 능력뿐만 아니라 지각, 기억,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다. 레건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삶의 주체는 도덕적 권리를 가지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보았다.

444 (가)의 갑은 칸트, 을은 데카르트이다. 칸트와 데카르트는 모두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보았다. 특히 데카르트는 동물은 영혼이 없는 기계와 같으므로 동물을 잔혹하게 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인간의 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나. 데카르트는 인간이 동물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의무도 없다고 보므로 A에 적절하지 않다. 다. 칸트와 데카르트 모두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두 사상이 가 모두 긍정할 질문으로 B에 적절하지 않다.

445 제시된 글의 사상은 레건이다. 레건은 일부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고 보고, 이들의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이들이 지닌 도덕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삶의 주체란 지각, 기억, 믿음, 복지에 대한 이해관계,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위하는 능력 등을 지닌 존재로, 레건은 여기에 일부 동물(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동물)이 해당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나. 레건이 아닌 테일러의 입장에 해당한다.

446 제시된 글의 사상은 싱어이다.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중차별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은 생명 중심주의의 입장이다. ② 싱어는 이성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에 따라 도덕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③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보편적인 도덕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이에 따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의 이익 관심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는 생명 중심주의의 입장이다.

447 **모범 답안** 갑은 싱어이고, 을은 레건이다.

448 **모범 답안** A: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B: 인간이 아닌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C: 의무론의 관점에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 일부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449 갑은 칸트, 을은 싱어이다. 칸트는 오직 이성적 존재만이 목적적 가치를 지니며, 인간에게는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 의무가 있고, 동물에 대한 존중은 인간을 위한 간접적인 의무로서 주어진다고 보았다. 한편

싱어는 인간뿐만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며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의무의 대상은 오직 인간뿐인가?'에 대하여 칸트는 긍정, 싱어는 부정의 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은 칸트가 부정의 답을 할 질문이다. 칸트는 인간에게만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③은 싱어가 긍정의 답을 할 질문이다. ④는 칸트와 싱어 모두 부정의 답을 할 질문이다. 두 사상이 모두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라고 보았다. ⑤는 칸트와 싱어 모두 부정의 답을 할 질문이다.

450 갑은 레건, 을은 칸트이다. 레건은 삶의 주체로서 일부 동물은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고 보고, 인간은 이러한 일부 동물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오직 이성적 존재만이 목적적 존재이며 인간의 직접적 의무는 인간에 대해서만 주어진다고 보고, 동물에 대한 존중은 인간을 위한 간접적 의무로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레건은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에서만 취급하는 동물 실험에 대해 전면적인 비판을 제기하였다. ② 레건은 이성적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삶의 주체에게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④는 칸트가 아닌 레건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는 칸트가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면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451 갑은 레건, 병은 코헨이다.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일부 동물에게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동물 실험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반면, 코헨은 동물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을 위해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코헨의 입장에서는 레건에게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론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은 싱어의 입장에서 제기할 반론에 해당한다. ② 코헨은 동물이 도덕적 행위 능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③ 코헨은 동물과 인간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⑤ 코헨은 동물의 쾌고 감수 능력에 주목하지 않는다.

452 갑은 싱어, 을은 레건, 병은 칸트이다. 싱어는 ㉠ '쾌고 감수 능력'을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레건은 지각, 기억, 믿음, 복지에 대한 이해관계,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위하는 능력을 지닌 ㉡ '삶의 주체'는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다. 칸트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의무는 오직 인간을 위해서만 주어지며, 동물에 대한 의무는 인간성 보호를 위한 ㉢ '간접적인' 의무일 뿐이라고 보았다.

453 갑은 싱어, 을은 레건이다. 두 사상은 모두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이성적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에 따라, 레건은 삶의 주체인지의 여부에 따라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며,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나. 싱어만 동의할 주장이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 유무에 따라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레건은 삶의 주체인지 여부에 따라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삶의 주체의 조건으로 쾌고 감수 능력 외에도 지각, 기억, 믿음, 복지에 대한 이해관계,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위하는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454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고유한 선을 추구하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인간에게는 생명체에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④ 테일러에 따르면 인간은 불간섭의 의무에 따라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455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테일러이다.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생명체는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인간은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연 존중의 의무가 있는데 이는 생태계를 조작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불간섭의 의무와 다른 생명에 대해 기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성실의 의무, 다른 생명체에 해를 끼친 경우 보상해야 한다는 보상적 정의의 의무 등이 있다.

바로알기 | ④ 테일러는 쾌고 감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생명 자체의 내재적 가치에 근거하여 생명체의 존엄성을 주장한다.

개념 보충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의무	
악행 금지의 의무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생명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
불간섭의 의무	개별 생명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태계를 조작·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실의 의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닳을 놓는 등 야생 동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사냥, 낚시 금지 등)
보상적 정의의 의무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456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레오폴드이다. 레오폴드는 대지를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로크의 관점을 거부하고 대지 윤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심미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레오폴드의 입장은 개별 생명체보다 생명 공동체 그 자체, 즉 생태계에 대한 도덕적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하여 환경 파시즘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바로알기 | ① 레오폴드는 식물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아닌 흙이나 물도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 ② 레오폴드는 인간이 대지의 한 구성원이라고 보며 전일론적이고 유기적인 사고를 강조한다. ③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보다 생태계의 온전성과 심미성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⑤ 레오폴드는 땅을 재산으로 바라보는 로크의 관점을 거부하고 대지 윤리의 관점을 제시한다.

457 갑은 네스, 을은 레오폴드이다. 네스는 인간과 자연의 동일시를 통한 큰 자아의 실현을,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과 안전성, 아름다움을 보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세계관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 생명 공동체의 가치 등을 경시한다고 비판하면서, 자연 그 자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생태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ㄷ.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에서는 무생물도 생태계의 구성원이므로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458 (가)의 갑은 테일러, 을은 싱어이다.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한편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테일러와 싱어는 모두 도덕적 책임의 대상이 인간에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 외의 존재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은 테일러는 부정, 싱어는 긍정할 진술로 B가 아닌 C에 해당한다. 테일러는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지만,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만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

459 갑은 테일러, 을은 레건이다.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고,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일부 동물이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두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도덕적 행위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 책임은 인간에게만 주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③, ⑤는 테일러와 레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는 테일러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60 (가)의 갑은 싱어, 을은 칸트, 병은 테일러이다.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고, 칸트는 동물에 대한 잔혹한 행위는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고유의 선을 추구하며 의식 유무와 상관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생명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악행 금지의 의무를 주장하였다. 또한 싱어, 칸트, 테일러는 모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잔혹하게 다루면 안 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인간의 고통만이 아니라 동물의 고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ㄴ. 이성적 존재, 즉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세 사상가 모두 긍정할 입장으로 D에 들어가야 한다.

461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슈바이처, 병은 레오폴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슈바이처는 생명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생명 외경을 강조하였다.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생명이 없는 흙이나 물 등의 무생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은 베이컨이 주장한 것이다.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만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며, 슈바이처는 생명을 지닌 존재에게만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462 갑은 레오폴드, 을은 싱어, 병은 테일러이다. 레오폴드는 대지 윤리의 관점에서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생명체뿐만 아니라 흙이나 물과 같은 무생물을 포함한 생명 공동체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인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레오폴드는 싱어에게 생명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싱어는 모든 생명체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③ 싱어는 인간만이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④ 테일러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의무로서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의무가 주어진다고 보았다. ⑤ 테일러는 생명을 지닌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463 (가)의 갑은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싱어, 병은 생명 중심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슈바이처이다.

464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자연이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라고 보았고,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꽤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슈바이처는 생명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생명 외경을 강조하며,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한편 세 사상이 모두 인간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ㄴ. 싱어와 슈바이처 모두 인간과 동물이 도덕적 관점에서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B에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10~12강)

120~121쪽

465 ④ 466 ⑤ 467 ② 468 ② 469 ④ 470 ④
471 ③

465 갑은 과학 기술 연구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윤리적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을은 과학 기술 연구의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은 'X: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강조하는 정도'는 낮고, 'Y: 과학 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정도'는 높으며, 'Z: 과학 기술 연구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정도'는 낮으므로, ㉠에 해당한다.

466 (가)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 현세대가 미래 세대와 생태계 전체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이때 윤리적 책임은 호혜적 책임이 아니며, 기술 권력을 지닌 현세대의 인간이 일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요나스는 기술 권력을 지닌 현세대에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로 연결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은 요나스가 긍정할 질문으로 A가 아닌 B에 적절한 질문이다.

467 제시된 글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구조의 감옥인 판옵티콘과 같은 거대한 감시 체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며 이를 경고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제시된 글에서는 과학 기술에 종속되는 현상이 아니라 과학 기술에 의한 감시 체제의 등장을 다루고 있다. ③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이점에 해당한다. ④ 제시된 글에서는 생명 과학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에 의한 감시 체제의 등장을 다루고 있다. ⑤ 제시된 글에서는 과학 기술 발달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이 아니라 사회 감시 체제의 등장 문제를 다루고 있다.

468 (가)의 갑은 정보 공유론의 입장을, 을은 정보 사유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A에는 갑의 입장이 을의 입장에 비해 가지는 상대적 특징이, B에는 을의 입장이 갑의 입장에 비해 가지는 상대적 특징이 들어가

야 한다. 갑은 을에 비해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중시하는 정도와 정보의 자유로운 복제 허용을 강조하는 정도가 높다. 반면 을은 갑에 비해 정보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정도, 정보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중시하는 정도,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강조하는 정도가 높다.

469 (가)의 갑은 슈바이처, 을은 싱어이다. 슈바이처는 생명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꽤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슈바이처는 긍정을, 싱어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또한 '동물을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존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슈바이처와 싱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두 사상이 모두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470 (가)의 갑은 칸트, 을은 싱어, 병은 슈바이처이다.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의 인간의 도덕성 보호를 위한 간접적 의무로서 주어진다고 본다.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꽤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슈바이처는 생명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생명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인간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라고 본다. 세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인간이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ㄴ. 도덕적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싱어와 슈바이처의 공통된 입장이므로 B에 적절하지 않다.

471 (가)의 갑은 레진, 을은 테일러, 병은 레오폴드이다. 레진은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생명체가 아닌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 그 자체, 즉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에 대한 도덕적·심미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은 칸트의 입장에 해당한다. ㄴ. 유정적 존재란 꽤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물과 같은 유정적 존재를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는 테일러와 레오폴드도 긍정할 선지로 B에 적절하지 않다.

13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개념 확인 문제

122쪽

472 (1) 예술 도덕주의 (2) 예술 심미(지상)주의 473 (1) × (2) ○

난이도별 필수 기출

123~127쪽

474 ⑤ 475 ④ 476 ② 477 ⑤ 478 ⑤ 479 ⑤
480 ③ 481 ③ 482 ⑤ 483 ③ 484 ④ 485 ③
486 ④ 487 ④ 488 ⑤ 489 ① 490 ④ 491 ⑤
492 ④ 493 ②

474 제시된 글은 예술에 대한 심미주의를 강조하는 스프링겐의 주장이다. 스프링겐은 예술이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예술은 예술 외의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①에는 미적 경험은 다른 것을 산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바로알기 | ①, ②, ③, ④는 모두 예술 도덕주의 입장에 해당한다.

475 제시된 글은 모든 예술 작품이 인간의 품성과 올바른 행위를 위한 도덕적 본보기와 교훈을 제공해야 한다는 예술 도덕주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예술 도덕주의 관점에서는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며, 인간의 올바른 도덕적 품성 함양을 목적으로 예술이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는 상호 연관되며, 예술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순수 예술론보다는 예술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참여 예술론을 지지한다.

바로알기 | ④ 예술이 현실과 무관한 이상 세계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은 예술에 대한 심미주의 입장에 해당한다.

476 (가), (나)는 공통적으로 예술 도덕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술 도덕주의는 모든 예술 작품이 도덕적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하며, 예술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 (나)는 모두 예술과 윤리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③, ④, ⑤는 모두 예술 심미주의 입장에 해당한다.

477 제시된 글의 사상은 칸트이다. 칸트는 미적 체험이나 도덕적 행위는 공통적으로 자유가 전제될 때 성립된다고 보고, 미적 판단의 형식과 도덕 판단의 형식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름다운 것이 도덕성의 상징이며, 아름다움이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판단 근거는 순수한 형식이며,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이해 관심과 무관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⑤ 칸트는 미적 즐거움이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며, 미적 체험은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본다.

478 갑은 플라톤, 을은 와일드이다. 플라톤은 아름다움[美]이 도덕적 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예술가는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여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와일드는 예술이 도덕적 판단의 대상

이 아니라고 보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플라톤과 와일드는 공통적으로 예술이 미적 가치를 다루는 활동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 플라톤은 예술에 대한 평가가 도덕적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본다.

479 플라톤은 예술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감정의 고양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 예술은 사람들의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해 삶의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와일드는 예술이 도덕이나 정치와 같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예술은 다른 목적이 아닌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은 플라톤과 와일드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③, ④는 플라톤은 부정, 와일드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80 갑은 예술이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도덕, 정치 등의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예술 심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을은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예술은 윤리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예술 도덕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는 높고, 'Y: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도'는 낮으며, 'Z: 예술을 통한 도덕적 품성 함양을 중시하는 정도'는 높으므로 ㉠에 해당한다.

481 갑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며 예술과 도덕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고, 예술이 도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을은 예술이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술이 도덕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을은 예술이 영혼을 기품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갑은 예술의 가치를 예술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ㄴ. 예술이 선을 표현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을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482 (가)는 목자, (나)는 유교의 예술관이다. 목자는 음악을 심미적 관점보다 실용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음악이 감정적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생산 활동에 방해가 되므로 천지의 해악을 없애기 위해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유교에서는 예악이 정서의 순화와 언행의 교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예술이 사람의 도덕적 품성을 고양하고 사회 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 목자와 유교는 모두 음악의 가치에 대해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 유교에서는 예와 악이 모두 천지의 질서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483 갑은 유교의 관점에서 음악이 인간의 품성과 올바른 행위와 관련한 도덕적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본다. 을은 예술 심미주의 입장에서 미적 경험은 다른 것을 산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갑은 을과 달리 예술이 인격 완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 을은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상호 분리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은 을의 입장에 해당한다. ㄴ. 예술이 윤리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우며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을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484 (가)는 예술이 인간의 도덕적 품성에 기여하고 윤리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나)는 예술의 목적이 오직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므로 윤리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

는 상대적 특징은 'X: 예술의 이상과 현실의 분리를 강조하는 정도'와 'Y: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정도'는 높으며, 'Z: 예술이 공동체의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는 낮으므로 ㉔에 해당한다.

485 ㄱ은 정약용, 을은 플라톤이다. 정약용은 음악이 인격 수양과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보고, 음악이 인간의 품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플라톤은 예술이 도덕적 이상을 모방함으로써 영혼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 미적 가치가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ㄴ은 정약용과 플라톤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86 ㉑은 예술 심미주의, ㉒은 예술 도덕주의, ㉓은 순수 예술론이다. 예술 심미주의는 예술이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예술을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예술 도덕주의는 예술이 올바른 품성 함양과 도덕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순수 예술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며,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한다.

개념 보충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입장	
예술 도덕주의	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 → 예술의 사회성 강조
예술 심미주의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 →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조

487 (가)의 ㄱ은 목자, 을은 순자, 병은 칸트이다. 목자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음악이 백성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음악을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순자는 음악이 사람의 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예(禮)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보고 음악의 효과를 강조한다. 칸트는 아름다움과 선의 형식이 유사하므로 아름다움은 도덕성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순자와 칸트는 모두 예술이 인간의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 목자 또한 통치자는 음악이 백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목자는 음악이 백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488 ㄱ은 스핑겐, 을은 순자이다. 스핑겐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지향하며, 예술이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순자는 예술이 인격 완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예와 음악으로 백성들을 도덕적 삶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은 을의 입장에 해당한다. ㄴ은 ㄱ의 입장에 해당한다.

489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아도르노이다. 아도르노는 상업화된 예술을 문화 산업이라고 비판하며, 현대 예술이 자본에 종속되어 문화 산업으로 획일화되었다고 본다.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이와 같이 상업화된 대중문화는 기존의 지배 관계와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바로알기 | ㉔ 아도르노는 기술 복제 시대의 도래로 진품의 가치가 훼손되고 예술이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했다고 본다. ㉕ 아도르노는 대중문화가 문화 산업으로 전락하면서 미적 가치를 상실하고 예술을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게 되었다고 본다. ㉖ 아도르노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 작품의 감상이 감상자에게 고유한 체험이 아닌 표준화된 소비 양식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490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아도르노이다. 아도르노는 상업화된 예술을 문화 산업이라고 비판하며, 획일화된 문화 산업의 생산물이 이를 소

비하는 사람들을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비평과 반성적 사유를 위축시킨다고 본다. 즉, 문화 산업으로 인해 대중들의 사회 비판 의식이 약화되며, 예술의 상업화가 예술의 자율성과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예술의 자본 종속을 가속화한다고 본다. ㄴ,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으로 인해 대중들의 고유한 미적 체험이 사라지고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이 표준화된 소비 양식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본다.

491 아도르노는 막대한 자본의 투자로 발전하는 현대의 대중문화에서 자본이 문화를 지배하는 현상을 비판하고, 문화 산업이 비판 능력을 상실한 대중들을 양산하게 된다고 본다. 또한 문화 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문화의 획일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㉑ 아도르노는 대중문화와 문화 산업이 상호 의존적이라고 본다. ㉒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예술의 수단적 가치에만 치중한다고 본다. ㉓ 아도르노는 대중문화가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문화 생산물을 생산하여 대중의 다양한 자기표현과 개성을 훼손한다고 본다. ㉔ 아도르노는 대중문화의 형성 과정에서 사람들은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문화에 반응하게 되어 주체로서 자율성을 상실한다고 본다.

492

• 예술 작품의 고유한 분위기

복제 기술의 발달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사라지지만 누구든 예술 작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중 예술의 발달은 대중의 각성을 불러일으킴으로서 대중을 집단적 주체로 형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 벤야민은 복제 기술의 발달이 예술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을 높이고, 대중을 각성시킨다고 봄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벤야민이다. 벤야민은 복제 기술의 발달로 대중이 예술 작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개별화된 미적 체험이 가능해짐으로써 예술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고 본다. 또한 예술 작품이 본래 가지고 있던 아우라가 소멸됨으로써 오히려 대중들의 예술적 비평 활동이 가능해지며, 예술에 대한 숭배적 가치가 줄고 전시 가치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 벤야민은 예술 작품의 복제가 대중에게 개별화된 미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493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앤디 워홀이다. 워홀은 예술의 상업성을 옹호하며 자신을 사업 미술가라고 칭하고, 작업실을 공장이라고 주장한다. 워홀은 예술의 상업화로 인한 이익 추구가 예술가의 창작 의욕을 높이며, 예술의 상업화로 인해 일부 계층만이 누리던 예술을 더 많은 대중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ㄴ, 워홀은 예술 작품의 가치가 시장의 원리 속에서 평가되는 것에 동의한다. ㄴ은 워홀의 입장과는 달리 상업화된 예술에 반대하는 관점에서 지지할 주장이다.

14 의식주 윤리 ~ 다문화 사회의 윤리

개념 확인 문제

129쪽

494 (1) 유교 (2) 로컬 푸드 운동 (3) 거주

495 (1) ㄴ (2) ㄱ

496 (1) - ㉔ (2) - ㉕ (3) - ㉖

497 (1) × (2) × (3) ○

난이도별 필수 기출

130~135쪽

498 ②	499 ②	500 ①	501 해설 참조	502 ⑤
503 ②	504 볼노브	505 ③	506 ④	507 ①
508 ④	509 해설 참조	510 ⑤	511 ⑤	512 ④
513 ②	514 ②	515 ②	516 ③	517 ①
518 ③	519 ⑤	520 ③	521 해설 참조	522 ②

498 제시된 글에서는 상황에 따른 의복이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고 본다. 또한 때와 경우에 따라 적절한 의복을 선택하여 입음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의복은 예의와 사람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499 (가)는 슬로푸드 운동, (나)는 로컬 푸드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슬로푸드 운동은 음식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운동이다. 로컬 푸드 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먹거리 이동에 따른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로컬 푸드 운동은 음식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 건강한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니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슬로푸드 운동과 로컬 푸드 운동은 모두 소비자의 건강, 음식에 대한 알 권리 등과 이에 따른 윤리적인 식품 구매 실천과 관련이 있다.

바로알기 | ② 슬로푸드 운동은 식품 산업에서 경제성과 산업적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을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500 (가) 사상가는 맹자, (나) 사상가는 공자이다. 유교에서는 음식에 대한 절제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자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맹자는 '음식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② 맹자는 음식에 대한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고 본다. ③ 맹자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도덕적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본다. ④ 맹자는 음식 섭취가 단순히 개인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삶의 바탕이 된다고 본다. ⑤ 맹자는 음식 섭취도 도(道)를 바탕으로 두고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501 **모범 답안** 공자. 맹자와 공자는 모두 먹는다는 것이 자신과 타인을 살피는 덕의 실천으로, 음식을 대할 때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502 제시된 글은 공장식 축산업을 비판하며 인도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사육하고 생산하는 방식의 육류 소비나 채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식량 생산 및 음식의 소비 과정에서 동물 및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503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거주가 인간 존재의 근본 특성이라고 주장하며, 주거 공간이 역사성을 지닌 공동체적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주거 공간은 안전함, 접촉과 교류를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현대를 고향 상실의 시대로 보며, 현대인은 집의 실존적 의미 상실로 본래적 의미의 주거 공간을 많이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② 하이데거는 주거 공간의 본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등이 아니라 주거 공간의 목적인 보살핌과 돌봄, 인간의 본래적 존재 방식의 실현과 같은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504 **모범 답안** 볼노브

505 볼노브는 거주 공간이 외부 세계에 대해 열릴 수 있는 공간이자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인간이 거주 공간에서 유대감을 형성하며, 거주를 통해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볼노브에게 거주함이란 인간의 삶을 지속시키는 것이며, 집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알기 | ③ 볼노브는 거주 공간이 집 밖의 세계와는 구분되는 공간이라고 보지만, 거주를 통해 세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506 볼노브는 거주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인간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볼노브에게 거주 공간은 인간 삶의 중심이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볼노브의 관점에만 모두 옳게 표시한 학생은 정이다.

바로알기 | 세 번째 관점: 볼노브는 거주 공간이 외부를 지향하는 열린 공간이면서 동시에 집 밖의 세계와는 구분되는 닫힌 공간이라고 본다. 그러나 거주 공간으로부터 세상으로 모든 길이 뻗어 나가고 모든 길이 되 돌아온다고 봄으로써 거주 공간을 통해 인간과 세계가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507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베블런이다. 베블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계층이 과시 소비를 하며, 특히 생산 노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지 않고 소유한 재산으로 소비하는 유한계급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존경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시 소비를 하게 된다고 본다. 또한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계급에 상관없이 과시 소비가 일어나며, 필요 이상의 소비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소비가 일어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베블런에 따르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도 과시 소비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508 제시된 글에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유통하는 전체 과정을 윤리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여 소비하는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소비는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소비, 인류의 행복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소비를 추구한다. 윤리적 소비는 제품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고, 자신의 소비 행위가 노동자의 인권에 미칠 결과를 생각한다. 우리는 윤리적 소비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소비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알기 | ㄴ, 지역의 먹거리를 소비함으로써 환경에 기여하는 로컬 푸드 운동은 경제적 효용 가치가 아닌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다.

509 **모범 답안**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상품의 구매를 거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510 갑은 자신의 경제력 안에서 최선의 제품을 구매하는 합리적 소비를, 을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유통하는 모든 과정을 윤리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여 소비하는 윤리적 소비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다. 갑은 구매 가격을 소비의 최종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삼고, 소비자 자신의 욕구 충족과 이익을 고려한다. 을은 소비에서 정의·환경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고자 한다.

바로알기 | ⑤는 갑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511 (가)는 동화주의, (나)는 다문화주의의 입장이다. 동화주의는 이주민의 문화를 주류 문화로 편입시켜 단일한 문화로의 통합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문화주의는 이주민 문화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우열 없이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로알기 | ⑤ 문화의 상대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화주의만의 입장이다.

512 다문화에 대해 갑은 동화주의, 을은 샐러드 볼 모형(다문화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갑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문화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문화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을은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상호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단일한 문화 중심의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정도'는 낮고, 'Y: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는 정도'는 높으며, 'Z: 문화 간 우열을 강조하는 정도'는 낮으므로 ㉔에 해당한다.

513 다문화에 대해 갑은 동화주의, 을은 다문화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갑은 동일성의 논리에 따라 소수 집단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류 문화로의 동질화·통합을 강조한다. 을은 사회 안의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함으로써 문화 간 공존과 조화를 추구하고,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 나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한다.

바로알기 | 나. 갑은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로 편입시키고자 한다. 리. 을은 기존의 주류 문화와 이민자 문화를 서로 대등하게 인정하고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강조한다.

514 다문화에 대해 갑은 국수 대접 모형, 을은 샐러드 볼 모형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수 대접 모형은 주류 문화를 인정하면서도,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샐러드 볼 모형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구분 없이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대등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바로알기 | ①, ③은 갑, 을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는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개념 보충

다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동화주의	이주민 문화 등의 소수 문화를 기존의 주류 문화에 통합하려는 입장
다문화주의	-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와 자율성을 존중하여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입장 -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구분이 없음
문화	기존의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입장
다원주의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구분이 있음

515 갑은 용광로 모형, 을은 국수 대접 모형, 병은 샐러드 볼 모형의 입장을 취한다. 갑은 이민자 문화의 특성을 배제하고 이민자 문화를 주류 문화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을과 병은 이민자 문화의 특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을은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비주류 문화와의 공존을 주장하는 반면, 병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구분 없이 다양한 문화가 대등한 자격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갑, 을과 달리 병은 각 문화가 대등한 자격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다.

바로알기 | ① 병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분하지 않는다. ③ 병은 서로 다른 문화가 대등한 자격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④ 병은 이주민들의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입장을 취한다. ⑤는 갑의 입장에 해당한다.

516 제시된 글의 사상은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인간을 종교적 존재로 보고, 인간이 가진 종교적 지향성을 인간의 근본적 성향으로 파악한다. 또한 세속적인 것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나게 되므로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무관하지 않으며, 현실에서 성과 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③ 엘리아데는 일상적인 삶 자체가 언제든지 성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세속과 성스러움의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종교 생활을 강조한다. 따라서 과학을 통해 성스러운 자연물을 찾아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517 제시된 글의 사상은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종교적 지향성이 인간의 근본적 성향이라고 보고, 비종교적 인간도 의식하지 못할 뿐 일상에서 종교적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또한 종교적 성스러움은 현실과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삶 자체가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 즉 성현(聖顯)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다. 엘리아데는 일상의 돌이 성스러움을 드러낼 수는 있으나, 성스러움이 드러난 돌 자체가 초월적 존재는 아니라고 본다. 리. 엘리아데는 성스러움이 속의 세계에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본다.

518 제시된 글의 사상은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성(聖)과 속(俗)이 분리되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세속적인 삶에서도 언제나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엘리아데는 세계 속에서 성의 현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세계를 초월적 존재 그 자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② 엘리아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⑤ 엘리아데는 일상의 돌이나 나무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지만, 성스러움이 드러난 돌이나 나무 자체가 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519 제시된 글의 사상은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며, 자연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는 것이라고 본다.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엘리아데는 '일상의 삶 자체가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이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는 것이라고 본다. ② 엘리아데는 현실의 삶 속에서 성스러움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③ 엘리아데는 세속적 휴머니즘과 초월적 세계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엘리아데는 현실의 세계에서 성이 현현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세계 자체가 초월적 존재라고 보지는 않는다.

520 갑은 종교와 과학이 상호 적대적이므로,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을은 종교와 과학이 독립적인 영역이므로 독립성을 보장해서 상호 간 분리를 잘 유지한다면,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갑은 종교가 과학과 다르게 정서적이며 주관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본다. ② 갑은 종교와 과학의 임무가 상호 조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④ 을은 종교와 과학 간의 독립성이 유지된다면 모든 대립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모두 모든 종교적 교리를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521 **모범 답안** ㉠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 대화와 협력을 해야

522 갑은 종교와 도덕이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며 도덕적 삶과 종교적 삶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본다. 을은 종교와 도덕은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상호 무관한 영역이며 서로 다른 토대 위에 있다고 본다. 병은 종교와 도덕이 공동의 도덕적 토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연관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갑은 종교와 도덕의 상호 일치성을 강조한다. ③ 병은 도덕과 종교가 서로 공통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며, 도덕이 종교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지 않는다. ④는 갑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 을은 종교와 도덕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보고, 병은 상호 관련이 있다고 보지만 도덕과 종교가 서로 종속의 관계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13~14강)

136~137쪽

523 ① 524 ① 525 ④ 526 ⑤ 527 ④ 528 ③
529 ⑤ 530 ③

523 제시된 글의 사상은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로서 인간이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본래적 의미의 주거 공간을 상실한 '고향 상실' 시대를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이데거는 거주함이 인간의 본래적 존재 방식이라고 본다.

524 제시된 글의 사상은 볼노브이다. 볼노브는 거주 공간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집이 안식을 얻기 위해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내부에서 즐겁게 머무를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볼노브는 거주 공간이 집 밖의 세계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집에 거주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노브에게 집은 보다 넓은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중심이 된다.

바로알기 | ① 볼노브는 집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사적인 공간이라고 본다.

525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공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식에 대한 욕망을 인간이 가진 이성을 통해 적절하게 조절하여 중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음식 섭취에 무절제한 사람을 욕망에 종속된 사람이라고 여긴다. 한편 공자는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도 인간다운 품위와 도덕적 품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음식을 섭취할 때 예(禮)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ㄹ.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자는 모두 음식을 섭취하는 태도가 도덕적 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526 (가)의 갑은 다문화에 대해 샐러드 볼 모형의 입장을, 을은 국수 대접 모형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갑은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을은 주류 문화를 우위에 두고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간에 조화와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갑, 을 모두 소수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B에 해당한다. ②는 동화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③은 갑만의 입장이므로 A에 해당한다. ④ 갑, 을 모두 이주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B에 해당한다.

527 갑은 국수 대접 모형(문화 다원주의)의 입장을, 을은 동화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갑은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비주류 문화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을은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편입시켜 사회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갑은 소수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지만, 을은 통합의 관점에서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 갑, 을 모두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구별에 찬성한다. ② 갑은 비주류 문화와 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고 보고, 을은 소수의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중심 문화와 함께 소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을은 중심 문화의 관점에서 문화의 단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모두 주류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므로 각각의 문화가 대등한 자격으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본다.

528 제시된 글의 사상은 엘리아데이다. 엘리아데는 인간을 종교적 존재로 보고, 세속과 성스러운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종교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인간이 체험을 통해 신적인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종교적 인간은 현실에서 드러나는 성현(聖顯)을 통해 거룩한 존재를 만나게 된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엘리아데는 성스러운 세계와 속세의 조화를 추구하지만, 두 세계가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ㄴ. 엘리아데는 초자연적인 성(聖)과 자연적인 속(俗)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529 (가)는 샐러드 볼 모형(다문화주의), (나)는 동화주의의 입장이다. (가)는 다양한 문화가 대등한 자격으로 공존해야 한다고 보며,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이주민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편입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가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⑤ 문화 통합을 위해 주류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나)만의 입장이다.

530 제시된 글의 사상은 보드리야르이다. 보드리야르는 광고가 전달하는 상품의 이미지가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여 필요 이상의 것을 소비하도록 만든다고 보고 이를 비판한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가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이 주체성을 잃게 되었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③ 보드리야르는 현대인의 소비 활동이 실제로는 욕구 체계를 발생시키고 관리하는 생산 질서에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15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민족 통합의 윤리

개념 확인 문제

139쪽

531 (1) 세대 (2) 지역

532 (1) 화이부동 (2) 화쟁

533 (1) ○ (2) ×

534 (1) - ㉔ (2) - ㉕ (3) - ㉖

난이도별 필수 기출

140~147쪽

535 ⑤ 536 ② 537 ④ 538 ③ 539 ③ 540 ⑤
541 ② 542 ④ 543 ② 544 ③ 545 ⑤ 546 ④
547 ① 548 ③ 549 ② 550 ② 551 ① 552 ③
553 ① 554 ⑤ 555 ③ 556 ② 557 ④ 558 ⑤
559 ② 560 ① 561 ⑤ 562 ⑤ 563 ⑤ 564 ⑤
565 ③ 566 ③

535 갑은 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난민 수용의 현실성과 사회적 갈등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수의 검증된 난민만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과 을의 대화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 판단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바로알기 | ② 갑, 을은 모두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③ 갑, 을의 대화는 지역 격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④ 갑, 을의 대화로부터 이들이 다른 세대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

536 ① 한자어 갈등은 씹이나 등나무가 얹혀 있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이다. ③ 하버마스는 이상적 대화 조건으로 이해 가능성,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을 제시하였다. ④ 담론이란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 의사소통 행위로, 주로 토론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⑤ 장자는 도(道)의 관점에서 보면 옳고 그름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만물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맹자가 제시한 '둔사(遁辭)'란 스스로 이론이 궁색함을 알고 회피하려고 꾸며서 하는 말을 의미한다.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말은 '피사(訛辭)'이다.

537 형성평가의 정답과 학생이 받을 점수는 다음과 같다.

번호	내용	응답	정답	점수
1	이념 갈등은 이념의 차이를 흑백 논리에 따라 구분할 때 <u>완화된다</u> . → 심화됨	○	×	0
2	세대 갈등은 시대별 경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	○	1
3	사회 통합이란 사회 내의 개인이나 집단이 상호 작용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말한다.	○	○	1
4	전체주의 사회는 통제와 지시로 일상불란하게 운영되므로 진정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공재(×), 원효(○)	×	×	1
5	공자는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키지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는 <u>화쟁 사상</u> 을 주장하였다. → 일심에 근거함	×	×	1
합계		(4)점		

바로알기 | 1. 이념 갈등은 이념의 차이를 흑백 논리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때 심화된다. 4. 전체주의 사회는 통제와 지시로 운영되므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5. 화쟁 사상은 공자가 아니라 원효의 사상이다.

538 갑은 을에게 사회 통합을 위해 소통과 담론이 필요한 이유를 묻고 있다. 따라서 ㉔에는 이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 통합을 위해 소통과 담론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소통과 담론을 통해 도덕적 권위를 갖춘 합의의 도출할 수 있으며, 폐쇄적인 결정과 일방적 통제로 운영되는 사회는 불만과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바로알기 | ㄹ. 이해 관련 집단들과 권위 있는 기관들의 일방적인 결정은 도덕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539 공자는 군자가 도덕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주장하였다. 원효는 화쟁 사상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대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포용과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밑은 인간이 오류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전제하에 모든 의견이 검토될 수 있는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ㄹ. 하버마스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역할과 상관없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지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논의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540 대화의 스승은 공자이다. 공자는 이상적 인격으로서 군자(君子)를 제시하며, 군자는 도덕적 신념을 지키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쉽게 굽아지지 않아야 한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공자는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해야 한다고 본다. ② 공자가 보기에 소인은 도덕 원칙을 비교적 쉽게 어길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다. ③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④ 화쟁 사상은 원효가 제시하였다.

541 맹자는 소통을 방해하는 네 가지의 그릇된 언사를 제시하였다. 이 중 사사(邪辭)는 '간교하게 속이는 말'이고, 둔사(遁辭)는 '스스로 이론이 궁색함을 알고 회피하려고 꾸며서 하는 말'이며, 피사(訛辭)는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말'을 의미한다.

개념 보충

맹자가 제시한 소통을 방해하는 언사

피사(訛辭)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말
음사(淫辭)	음란하고 방탕한 말
사사(邪辭)	간교하게 속이는 말
둔사(遁辭)	스스로 이론이 궁색함을 알고 회피하려고 꾸며서 하는 말

542 (가)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불교의 다양한 종파와 교설들이 결국 부처의 마음으로 수렴될 수 있다는 일심(一心) 사상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관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융합되어야 한다는 화쟁 사상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효의 입장에서는 (나)의 A에게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소통을 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함으로써 더 큰 관점을 취해 편견을 버리는 자세를 갖추라고 조언할 것이다.

바로알기 | ㄱ. 원효는 다른 의견과 충돌하는 주관을 내세우기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원효는 엄격하게

시비를 분별하기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43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불교의 다양한 이론이 갈등하는 것은 불교의 진리가 하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임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들을 대승적 차원에서 조화시킴으로써 다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알기 | 나. 원효는 다양한 종파의 교설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주장한다. 다. 원효는 종파 간에 서열을 나누어야 한다고 보지 않고, 다양한 교설들이 결국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높은 차원에서 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44 담론 윤리는 사회적 문제의 당사자들인 시민들이 공적 담론을 통한 합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히 하버마스는 시민들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발휘하여 상호 주관성에 이를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규범이 보편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시민 간에 이루어진 담론 과정에 따라 합의된 규범에 대해 담론의 참여자들은 그 결과와 부작용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③ 담론 윤리에 따르면 공적 담론의 합의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담론 참여자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 기초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545 밑줄 친 '이 윤리'는 담론 윤리이다. 담론 윤리는 인간이 지닌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담론의 과정을 중시한다. 특히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의 규범적 조건을 제시하며,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⑤ 담론 윤리는 일원화된 의사 결정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당사자인 시민들이 서로 이해하며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한다.

546 (가)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으로 이해 가능성, 정당성, 진리성, 진실성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발휘하여 담론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주장이 올바른지 끊임없이 검토해야 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해야 하며, 타인의 주장에 대해 경청해야 하고, 사회적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바로알기 | ④ 권위 있는 사람의 주장이라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47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평등하게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나.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는 타인의 주장에 대해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의 참여자가 상황에 따라 질문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548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담론 윤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여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또한 담론 과정에서는 어떤 주장이든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기초하여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담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기초하여 논증적인

토론을 통해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③ 하버마스에 따르면 토론에서는 누구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부칠 수 있으며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다.

549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담론 과정에서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하버마스는 다수결의 원칙을 비판하면서,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기초하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론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하버마스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도 검토될 수 있으며, 모든 담론 참여자가 동등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든지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550 (가)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문제의 당사자들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입장에서는 (나)의 문제 상황에 대해 공론장을 통해 주민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③ 하버마스는 시민 사회의 문제를 당사자들의 의사소통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하버마스는 시민 사회의 문제는 유용성의 원칙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근거하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타당한 규범에 합의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하버마스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나 명령이 아니라 시민들이 담론에 참여하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551 (가)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도구적 합리성이 의사소통의 합리성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시민 사회의 문제가 공론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상적 담화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담론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얻을 때 규범의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보았으며, 대화 중 어떤 주장에 대해서든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상적 담론을 위해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 이해 가능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하버마스는 담론 상황의 개인은 누구나 개인적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52 하버마스는 시민 사회 내부에서 작동하는 의사소통의 영역으로서 공론장이 확보되고, 이에 기초하여 시민 사회의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나)의 질문에 대해 제시할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들의 이성적 토론을 통해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알기 | ① 하버마스는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논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하버마스는 국가 기관보다 시민 사회가 주도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하버마스는 이익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아니라 모든 담론 참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하버마스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도구적 합리성이 아니라 상호 주관성을 추구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의해 공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553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논의에 참여하고, 어떤 주장이든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옳고 진실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ㄷ.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는 담론 참여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ㄹ. 모든 담론 참여자는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54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에 기초하여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론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담론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담론 과정에서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든지 합리적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담론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누구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⑤ 하버마스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상호 주관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모든 참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555 통일 한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평화로운 국가이자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 국가를 지향해야 하며, 자신의 신념과 선택에 따른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바로알기 | ㄹ. 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

556 제시된 신문 칼럼에서는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적 편익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일이 경제적 변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557 제시된 글은 독일 통일 이후 외형적인 통합이 진척되면서 발생한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일에 대한 교훈은 외형적 통합뿐만 아니라 내면적 통합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558 제시된 글은 통일 한국의 지향점으로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이 법적·실질적으로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교육 기회의 법적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 접근권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출신 성분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바로알기 | ⑤ 제시된 글에서는 교육 영역에서의 법적, 실질적 차별이 사라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폭력의 제거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주장이다.

559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통일이 언제든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남북한 출신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바로알기 | ㄷ. 북한은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균형적인 관점이 요청된다.

560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국가 존립에 필요한 안보 기반의 구축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병행하여 서로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있다. 또한 통일에 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

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통합 과정의 어려움에 대비한 장기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바로알기 | ㄷ. 남북통일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합의에 의한 외형적 통일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통합까지 이룬 진정한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ㄹ.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영향을 주므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561 ㉠은 분단 비용, ㉡은 통일 비용이다. 분단 비용은 분단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모적인 비용이고, 통일 비용은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언젠가 통일 편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투자적인 성격을 가진 비용이다.

바로알기 | ① 분단 비용은 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비용으로, 통일 이후에는 사라질 비용이다. ②는 분단 비용이 아닌 통일 비용에 대한 설명이다. ③, ④는 통일 비용이 아닌 분단 비용에 대한 설명이다.

562 (가)는 통일 편익, (나)는 분단 비용, (다)는 통일 비용에 대한 예시이다. 통일 편익에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 분단 비용은 분단 상태에서 지출되는 소모적인 비용으로, 이것이 증가할수록 통일에 찬성하는 국민의 수도 증가할 수 있다. 한편 통일 비용이 증가할수록 통일을 반대하는 국민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바로알기 | ⑤ 통일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다' 통일 비용보다 '가' 통일 편익이 크다고 주장할 것이다.

563 제시된 글은 독일 통일의 사례를 들어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면서도, 통일 편익이 더 크다는 점을 근거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564 갑은 통일 비용의 지출 규모가 크다고 보면서 통일이 국민에게 손해만을 초래한다고 본다. 반면 을은 통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크다고 보면서 통일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통일로 인한 평화 실현의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는 높고, 'Y: 통일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의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와 'Z: 통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의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는 낮으므로 ㉡에 해당한다.

565 갑은 어떤 국가의 인권 문제는 해당 국가의 책임이므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을은 인권 문제의 해결이 인류의 보편적 의무라고 보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①, ② 갑은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의 책임이라고 보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국제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모두 북한에 인권 문제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566 갑은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을은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근거로 통일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편 병은 사회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로알기 | ③ 분단 비용은 미래에 대한 투자적 성격을 가지는 비용이 아니라 분단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소모적 비용이므로, 을이 갑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16 지구촌 평화의 윤리

개념 확인 문제

149쪽

567 (1) ㄴ (2) ㄱ

568 (1) 공화정 (2) 적극적 평화

569 세계화

570 (1) - ㉔ (2) - ㉕ (3) - ㉖

난이도별 필수 기출

150~157쪽

571 ⑤	572 ②	573 ①	574 ①	575 ②	576 ④
577 해설 참조	578 ④	579 해설 참조	580 ⑤		
581 ①	582 ②	583 ⑤	584 해설 참조	585 ④	
586 ④	587 ①	588 ③	589 ①	590 ④	591 ③
592 ②	593 ⑤	594 ⑤	595 ⑤	596 ③	597 ④
598 ②	599 ②	600 ③	601 ⑤	602 ②	

571 제시된 입장은 국제 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의 입장이다.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므로, 이기적인 인간들로 구성된 국가 역시 이기적이라고 본다. 또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의 합의가 불가능하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권력 투쟁이 국제 관계의 본질이라고 본다. 나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가 간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㉔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전쟁은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이다.

572 제시된 글의 사상은 칸트이다. 칸트는 자유로운 공화국 간의 연맹에 기초하여 영구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이루기 위해 그 예비 단계로서 상비군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상비군을 유지하면 국가 간 군비 경쟁으로 인해 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개별 국가의 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칸트는 군비 경쟁과 그에 기초한 세력 균형에 의해서는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본다. ④ 칸트는 영구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 연맹에 기초해야 한다고 본다. ⑤ 칸트는 각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법을 통해 영구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573 제시된 글은 현실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실주의는 국제 정치의 본질이 국가 간의 권력 투쟁이라고 보면서,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므로 영원한 우호국은 없다고 본다. 또한 국가 간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한 정치적 행위로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세 번째 관점: 현실주의의 관점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네 번째 관점: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국제 협약이나 국제법 등을 통한 상호 이익의 실현은 어렵다고 본다.

574 제시된 글의 사상은 칸트이다. 칸트는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순한 평화 조약이 아닌 평화 연맹(국제 연맹)에 기초하여 영구 평화를 위한 국제법과 세계 시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장차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평화 조약은 옳지 않다고 보고,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강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방인이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적으로 간주되지 않고 우호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환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칸트는 영구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상비군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575 국제 관계에 대해 갑은 현실주의, 을은 이상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실주의는 국제 분쟁이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이상주의는 이성적 대화와 국제 규범을 통해 국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현실주의는 국제 정치의 본질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보면서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크게 인정하지 않지만, 이상주의는 국제기구가 국가 간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은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현실주의는 국가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보지만 이상주의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이룬 국가 역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본다. ㄴ은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현실주의는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상주의는 도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576 국제 관계에 대해 갑은 현실주의, 을은 이상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의 본질이 자국의 이익 추구라고 보고, 국제 관계에서는 힘의 논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이상주의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며, 이러한 인간이 이룬 국가 역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본다.

바로알기 | ④ 이상주의는 국가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국가 간 관계에 도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577 **모범 답안** ㉠ 공화정(공화 정제), ㉡ 연방, ㉢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

578 제시된 글은 갈통의 평화론으로, ㉠에 들어갈 말은 '문화적 폭력', ㉡에 들어갈 말은 '적극적 평화'이다. 문화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에 문화 영역이 이용되는 형태의 폭력으로, 그 사례로는 조폭을 미화하는 영화 등이 있다. 한편 갈통이 말하는 적극적 평화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갈통은 이를 위해서 문화적 폭력과 같은 간접적 폭력까지도 소멸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④ 갈통이 말하는 적극적 평화는 국가 안보가 확장된 인간 안보의 개념이다.

579 **모범 답안** (1) 갈통 (2) ㉠ 소극적, ㉡ 적극적

(3) 특정 성별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기업의 임금 구조(구조적 폭력),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미화하는 드라마(문화적 폭력) 등

개념 보충

갈통이 제시한 폭력의 개념

직접적 폭력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간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사회 제도나 관습, 정치, 법률 등에서 생기는 폭력
	문화적 폭력	종교, 언어, 예술 등의 미면에 내재한 폭력으로,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함

580 제시된 글의 사상은 갈통이다. 갈통은 전쟁, 테러와 같은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보면서, 소극적 평화는 빈곤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다양한 차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갈통은 직접적 폭력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인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적극적 평화는 모든 인간이 차별에서 벗어나 인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바로알기 | ㉔ 갈등은 적극적 평화 개념을 제시하면서 국가 안보 차원(소극적 평화)에 머물러 있던 평화에 대한 인식을 인간 안보 차원(적극적 평화)으로 확장하였다.

581 갑은 칸트, 을은 갈통이다. 칸트는 세계 시민법이 보편적 우호 조건에 국한되어야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영구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평화 연맹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한편 갈통은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폭력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세 종류의 폭력은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건 다른 폭력으로 흐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확대·재생산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갈통은 적극적 평화를 주장함으로써 평화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간 안보의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582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세계적인 문화 교류로 인해 문화의 고유성이 약화되고 문화가 획일화될 수 있다는 점, 자본과 기술력을 지닌 강대국의 시장과 자본 독점으로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문화들이 상품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바로알기 | ㉔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로 창의성과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점은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해당한다.

583 ㉔에 들어갈 말은 '세계화'이다. 세계화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이나 인권 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빈부 격차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바로알기 | ㄱ. 세계화로 인해 세계적 규모의 보편적 문화 요소가 증가할 수 있다.

584 **모범 답안** 부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국가 간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다.

585 ㉔에 들어갈 소문자는 '세계화는 지역 문화의 획일화를 조장한다'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세계화로 인해 문화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의 문화 자원이 풍부해지며, 세계화의 확산과 지역의 고유한 전통 문화의 수호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는 지역 간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지역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국가 간 교류가 확산될수록 문화 교류도 활발해져 문화의 획일화가 사라지게 된다고 반론할 수 있다.

바로알기 | ㉔ 세계화가 시장 논리를 통해 문화를 상품화하여 독점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㉔에 찬성하는 근거이다.

586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차등의 원칙은 국제 사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조의 대상을 고통받는 사회로 한정하면서, 질서 정연한 사회는 비록 빈곤국이라고 할지라도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롤스에게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할 경우 원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알기 | ㄴ. 롤스는 원조를 통해 국가 간 빈부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롤스에게 원조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587 (가) 사상가는 롤스이고, (나)의 ㉔에 들어갈 말은 '(해외) 원조'이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이 확립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고, 원조 대상국에 사회 정의 실현이 가능한 적정 수준의 정부가 작동하여 그 목적이 달성될 경우 원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롤스는 원조가 자원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본다. ㄷ. 롤스는 원조가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는 자선적 행위이거나 부자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588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해당 사회는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ㄱ. 원조는 국가 간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ㄴ. 롤스는 원조 시 강제력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589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싱어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삶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라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원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싱어는 부유한 자가 원조를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ㄴ. 싱어는 싱어가 아니라 노직의 입장이다. 원조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선 행위라고 본 노직과 달리 싱어는 원조가 도덕적 의무라고 본다. ㄷ. 싱어는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원조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590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싱어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이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원조를 실천하기 위해 원조 대상의 국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류의 공리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윤리적 의무로서 원조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싱어는 공리주의에 따라 원조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과를 고려하여 빈자들에게 원조해야 한다고 본다.

591 제시된 사상가는 노직이다.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의 입장에서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고, 원조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선적 행위이지 개인에게 원조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첫 번째 입장: 노직은 소유 권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정의의 원리가 지켜졌다면 그 결과 발생한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두 번째 입장: 노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92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노직이다. 노직은 원조가 개인의 선택에 따르는 자선 행위라고 주장하며, 원조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과세 정책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 노동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ㄴ. 노직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원조는 자선적 행위로서 정당화된다고 본다. ㄷ. 노직은 아무리 약소한 국가더라도 그에 대한 원조는 의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93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원조함으로써 인류의 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 롤스

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싱어의 입장에서는 롤스에게 원조의 대상을 고통받는 사회로 한정하는 것은 빈곤한 국가에서 사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인들을 직접 돕는 일을 외면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① 원조를 자선으로 보는 노직의 입장에서 원조를 의무로 보는 롤스와 싱어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②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를 의무로 보고 있으므로, 롤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③ 싱어는 원조의 목적이 인류의 복지 수준 향상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싱어가 제기할 비판이 아니다. ④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싱어에게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이다.

594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본다. 싱어는 공리주의의 원리에 따라 원조 주체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원조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두 사상가는 모두 원조가 인류의 경제적 평등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바로알기 | ㄱ. 롤스는 원조를 강제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되므로 원조 대상 국가에 대한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ㄴ. 롤스는 원조의 목표가 복지 수준의 향상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본다.

595 (가)의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해외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싱어는 해외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원조하여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롤스의 입장에서 싱어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은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알기 | ①, ②, ③, ④는 싱어의 입장에서 롤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596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이 확립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보았다. 한편 싱어는 원조가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인류의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실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 롤스와 싱어 모두 해외 원조가 윤리적 의무의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A가 아닌 B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ㄴ. 롤스와 싱어 모두 해외 원조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두 사상가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는 진술이다.

597 (가)의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 인류의 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본다. 이때 민주적 질서가 수립된 국가는 고통받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 정연한 사회이므로, 롤스는 민주적 질서가 수립된 국가에 대한 원조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알기 | ①은 싱어와 롤스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는 싱어는 부정, 롤스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은 원조를 윤리적 의무로 보는 싱어와 롤스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롤스는 국제 사회에서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원조가 국제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598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지원보다 그 사회의 제도를 개선

하여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면서, 원조는 개인의 선택이지 의무로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① 롤스는 국제 사회에서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노직은 원조가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자선적 행위라고 보았다. ④는 노직이 아닌 싱어의 입장이다. ⑤는 롤스만 긍정할 입장이다.

599 (가)의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원조의 목표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목표가 실현된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원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원조는 오직 개인의 자유 의사에 달린 자선적 행위라고 보았다.

바로알기 | ㄱ은 롤스가 부정할 입장이다. ㄴ은 롤스만이 긍정할 진술로 A에 해당한다. 노직은 해외 원조는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자선 행위라고 보았다.

600 갑은 노직, 을은 롤스, 병은 싱어이다. 노직은 원조를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았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원조는 윤리적 의무라고 보았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인류 전체의 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조를 의무로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노직은 해외 원조를 의무가 아닌 자선의 차원으로 본다. ② 롤스는 개인보다 국가에 초점을 두어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 대상국으로 본다. ④는 롤스에게만 해당하는 입장이다. 롤스는 빈곤의 문제가 불합리한 정치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고통받는 사회의 제도를 개선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본다. ⑤는 롤스와 싱어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는 선지이다.

601 (가)의 갑은 싱어, 을은 노직, 병은 롤스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원조의 목적이 인류의 고통을 줄이고 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고 본다. 노직은 원조를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라고 본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본다. 한편 싱어와 롤스가 원조를 윤리적 의무라고 보는 반면, 노직은 원조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선적 행위로 본다.

바로알기 | ①은 싱어가 아닌 롤스의 입장으로 A가 아닌 C에 해당한다. ②는 노직이 아닌 싱어의 입장으로 B가 아닌 A에 해당한다. ③은 롤스가 아닌 노직의 입장으로 C가 아닌 B에 해당한다. ④는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롤스는 해외 원조와 같은 국제 관계에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602 (가)의 갑은 노직, 을은 싱어, 병은 롤스이다. 노직은 개인에게 원조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가 없으며, 원조를 개인의 자선 행위라고 본다. 싱어는 원조의 목표가 인류 전체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원조 여부를 결정할 때 원조 대상의 국적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롤스는 원조의 목표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보고, 인권이 보장된 사회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고통받는 사회가 아니므로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또한 싱어와 롤스는 공통적으로 원조가 윤리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②는 싱어와 롤스 모두 긍정할 질문으로 B에 적절하지 않다.

603 ① 604 ② 605 ④ 606 ① 607 ② 608 ③
609 ① 610 ⑤

603 제시된 글의 사상은 밀이다. 밀은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 하면서, 인간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에게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밀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진리를 탐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거짓이나 오류라고 합의된 소수 의견이라도,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리 탐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알기 | ② 밀은 진리로 공인된 견해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밀은 소수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밀은 표현의 자유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밀은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며, 소수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되고 검토될 수 있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604 제시된 글의 사상은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담론 윤리를 제시하면서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공적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담론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평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해야 하며,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알기 | ㄴ. 공적 담론을 통해 합의된 규범은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수정될 수 있다. ㄷ. 공적 담론에 대한 참여는 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05 그래프는 통일 이후 남한의 국민 소득이 일정 기간 감소하지만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는 국민 소득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A 단계는 통일 이전의 단계로 유무형의 분단 비용이 소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때 평화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다면 남북의 경제적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B 단계는 통일 직후의 단계로 이때 발생하는 통일 비용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C 단계부터는 통일 이전보다 더 큰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바로알기 | ④ C 단계는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을 상쇄하면서 남한의 경제가 통일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06 갑은 남북통일 이후에 한국이 동아시아의 물류와 교역의 중심지가 되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등 경제적 이익을 근거로 남북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을은 한반도에 전쟁을 공포를 없앴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근거로 남북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X: 통일의 경제적 실리의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는 낮고, 'Y: 통일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와 'Z: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을 강조하는 정도'는 높으므로 ㉠에 해당한다.

607 (가)의 갑은 노직, 을은 싱어이다. 노직은 해외 원조를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이 해외 원조의 목적이라고 보고, 원조를 윤리적 의무로서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싱어는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반드시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②는 싱어에게만 해당하는 진술로 A가 아니라 C에 해당한다.

608 (가)의 갑은 싱어, 을은 노직, 병은 롤스이다. 싱어는 해외 원조의 목적이 인류의 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보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원조하는 것이 윤리적 의무라고 본다.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고, 원조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자선 행위이므로 국가가 원조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원조는 윤리적 의무로서 주어진다고 본다.

바로알기 | ㄱ.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국경과 상관없이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만이 원조의 대상이라고 보고, 빈곤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609 (가)의 갑은 롤스, 을은 싱어, 병은 노직이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고, 이는 윤리적 의무로서 주어진다고 보았다. 싱어는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원조의 대상이라고 보고, 그 사람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와 상관없이 원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직은 원조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자선의 차원에서 개인이 행하는 원조는 긍정하였다. 따라서 롤스는 싱어에게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수준이 낮은 정치 문화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도 원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알기 | ② 롤스와 싱어 모두 원조를 당위의 차원에서 실시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라고 보고 있으므로 롤스에 대한 싱어의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노직은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을 취하지 않으며, 원조를 의무로 여기지도 않으므로 싱어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노직은 자원의 재분배를 위한 원조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싱어가 노직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노직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므로, 롤스에 대한 노직의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610 갑은 노직, 을은 롤스, 병은 싱어이다. 노직은 원조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원조만을 긍정한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만이 원조 대상국이 될 수 있으며,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질서 정연한 사회는 아무리 빈곤하더라도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싱어는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개인이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원조를 의무로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알기 | ① 노직은 원조를 의무가 아닌 자선 행위라고 보았으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원조를 실천했다면 이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긍정하였다. ② 롤스는 원조 대상 국가의 빈곤 여부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본다. ③ 싱어는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의 공리 증진이라고 보았으나, 이것이 인류 전체의 복지를 평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④ 노직은 원조가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롤스는 원조의 주체가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들이라고 본다.

Memo

Memo